

건축사 건축 548

건축사

2014 December

KOREAN ARCHITECTS 548



KIRA 2014 11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66년 창간

칼럼 편집인 칼럼
에세이 나무를 찾아, 나무를 좇아!
인터뷰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특집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토론회 협회 제31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 글. 김충호 Kim, Chung-ho
· 워싱턴대학교 도시설계 및 계획학 박사과정

누가 미국 도시를 디자인하는가?: 뉴 어바니즘 vs.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Who design American cities?: New Urbanism vs. Landscape Urbanism

미국 도시설계의 주체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

도시 는 오늘날 인류가 거주하는 가장 큰 물리적 환경의 총체로서,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도시를 설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며, 성취감 높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도시를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해야 할까? 건축사, 조경가, 도시계획가, 토목기술자? 일견 생각해 보면, 건축사는 도시의 집을, 조경가는 도시의 공원을, 도시계획가는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토목기술자는 도시의 인프라를 설계하기며, 도시설계의 총괄적인 역할은 과연 누가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물론, ‘도시설계가’라는 명칭이 일부에서 통용되고는 있으나, 도시설계 가만이 가지는 전문가로서의 교육 및 훈련과정이나 직업적 지위가 현재 다른 유사 직능과 분명하게 독립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건축사, 조경가, 도시계획가, 토목기술자도 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설계의 주체를 둘러싼 본질적인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뉴 어바니즘(New Urbanism)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 사이의 10여년에 걸친 논쟁이다. 이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도시를 디자인해야 하는가?”라는 이론적 논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면적으로는 “누가 도시를 디자인해야 하는가?”라는 도시설계의 업역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의 양상마저 띠고 있다.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vs.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

오늘날의 뉴 어바니즘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사이의 이론적 논

쟁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현재의 미국 도시담론의 큰 흐름을 결정 한 한 사람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은 1961년 출간된 책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으로 유명한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16~2006)다. 이 책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로, 도시의 생명력은 동네, 거리, 상점, 사람에 있으며, 이들의 일상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접촉이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혁신하게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1980년대 초반 등장하기 시작한 뉴 어바니즘(New Urbanism)은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 일어났는데, 앞서 제인 제이콥스의 생각과 깊게 맞닿아 있었다. 뉴 어바니즘의 핵심개념은 뉴어바니즘협회(Congress for the New Urbanism)에서 1999년 발표한 ‘뉴 어바니즘 헌장(The Charter of New Urbanism)’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뉴 어바니즘은 교외 개발(suburban development)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기존 도시와 마을을 되찾고자 하며, 이를 위해 건물 용도와 인구의 다양성(diversity of use and population), 보행 중심 개발(pedestrian-oriented development), 보편적인 접근 가능성(universal accessibility), 지역성(locality) 등을 실현할 물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반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1990년대 후반부터 조경가를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핵심개념은 현재 하버드대학교 조경학과장으로 있는 찰스 월드하임(Charles Waldheim)이 14명의 에세이를 묶어 2006년에 펴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리더(The Landscape Urbanism Reader)>에 잘 나와 있다. 이 책의 글 중에



뉴 어바니즘 프로젝트: Seaside, Florida (Duany Plater-Zyberk & Company 설계)
 ©http://www.dpz.com/Projects/7903

제임스 코너(James Corner)의 '테라 플럭서스(Terra Fluxus)'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특징을 시간에 따른 변화(process over time), 수평성(horizontal), 동시대의 방법과 기술(working methods/techniques), 현재에 대한 새로운 상상(the imaginary)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뉴 어바니즘이 추구하는 절대적이며 강력한 원칙, 수직성, 과거 유럽도시 지향적인 해결책, 이상적인 도시 모형과 크게 대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뉴 어바니즘 (New Urbanism)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Landscape Urbanism) |
|-------|---|---|
| 핵심 인물 | 안드레스 듀아니 (Andrés Duany) | 찰스 월드하임(Charles Waldheim) |
| 시기 |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 | 1990년대 후반 시작 |
| 접근 방식 | 건축 중심의 디자인 접근 -스케일에 따른 물리적 해결책 | 조경 중심의 디자인 접근 -다양한 디자인 어휘를 하나로 통합 |
| 특징 | - 과거 지향적(유럽식 건축/도시 지향) - 강력한 원칙과 이상적 모형 제시 - 합리주의적 사고 | - 현대/미래 지향적(최근 디자인 어휘) - 프로젝트에 따른 개념과 해결책 제시 - 경험주의적 사고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프로젝트: High Line Park, New York (James Corner Field Operations 설계)
 ©http://marialardi.com/2010/04/20/the-highline-%E2%80%93-new-york-by-jcfo-diller-scofidio-renfro/

그렇다면, 앞으로 뉴 어바니즘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어떻게 진화할까? 실상, 두 이념은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도시가 건축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만도, 조경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만도 없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앞으로 두 이념이 각자의 장점을 견지한 채,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절충주의적 성격을 추구하면서 진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뉴 어바니즘은 필지 중심의 건축행정절차나 도시설계 가이드라인과 같은 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점을 살리면서, 오늘날의 '친환경'과 같은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대응을 보여주리라고 본다. 실제로 최근에 뉴 어바니즘의 LEED-N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for Neighborhood Development) 참여는 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조경 중심의 개념 설정과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의 아이디어를 통해 오늘날 세계적 이슈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념으로서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도시의 밀도와 용도의 문제에 대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적인 해결책을 탐구하여 제시하리라고 본다. ☞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인터뷰
An Interview with Jin Hee Seon Chief of Housing Policy Office

서울의 구석구석이 변하고 있다!

-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듣는 서울의 주택정책 -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구석구석이 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상생의 주거공동체’이라는 목표에 걸맞은 실험적 형태의 주택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거대한 개발논리에 의해 도시가 좌지우지되는 시대를 넘어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개인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 공동체를 기반으로 거주자가 만들어가는 주택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진희선 실장이 있다. 진희선 실장을 만나 서울시의 도시재생과 주택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진행 : 정이숙 / 본지 편집위원

“이제 서울은 질적 성장의 시대로,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상생공동체, 행복공동체로 나아가는 시대”

삶의 터전, 바로 주거문제는 우리의 삶과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장으로서 ‘서울의 주택정책 방향’과 주택정책실의 조직구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대담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렸습니다. 무허가 주택의 급증과 인구 집중에 의한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서울은 화재, 안전, 위생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시행된 무단점유 판자촌의 철거와 불량주택의 개량사업이 서울의 도시정비역사의 시작이었으며, 당시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주택의 양적 확보’와 ‘주거 환경의 질 개선’으로 대변되었습니다. 실제로, 1960년 46만호에 지나지 않았던 서울의 주택 수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50만호로 증가되었으며, 주택보급률을 97%까지 끌어올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거환경 면에서도 1960년대에는 전체 80%가량이 우물 및 공동수도를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서울시 전역에서 개인수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원, 도로 등 많은 기반시설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양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의 강을 건너 질적 성장의 시대로,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상생공동체, 행복공동체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주택정책실 역시 상생의 주거공동체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따뜻하게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발전시키는 ‘통합적 도시재생’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건축’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주택건축정책관과 주거재생정책관 아래 8개과 3센터 총 24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서울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주택정책 파트에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최근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도시개발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개발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최근의 화두는 도시재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상생의 도시재생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서 마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 문화, 환경 등 통합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자생력을 확충하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2년 1월 뉴타운 수습방안을 발표하고, 그간 뉴타운·재개발 사업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구역은 행·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공관리하고 있으며,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대안사업으로 물리·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창신·송인동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주민 중심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창신·송인구역 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민 주도의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도심권을 제외한 4대 권역별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울은 백제시대를 시작으로 천년의 수도로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발전시키고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성곽마을을 조성입니다. 서울의 성곽 주변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조직 개편은 정책 발굴 및 수립 중심의 실 단위에서 ‘실행력을 강조’하는 본부로의 변화”

지역을 총9개 권역 22개 성곽마을로 구분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테마마을로 조성하고, 특화된 테마로 관광 명소화, 지역 경제 기반 확립을 통해 모두가 꿈꾸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경

새로 조직되는 도시재생본부는 큰 틀에서 기존 뉴타운·재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포함하여 ‘창신·송인’ 등 새롭게 시작하는 주민 주도의 ‘근린 재생형 주거재생’과 세운상가의 도심 재생활성화 및 동남권 MICE 추진 등의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하게 되며, 이를 위해 도시재생본부장 아래 재생정책기획관과 주거사업기획관을 두고 새롭게 신설되는 재생정책과와 공공재생과를 포함하여 총 9개과 2개 추진단, 1개의 센터로 조직이 구성될 것입니다.

최근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괄건축가의 도입배경이 궁금합니다. 총괄건축가제도 도입으로 서울의 건축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성곽마을 조성범위

그간 서울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였고, 공공건축물, 시설물 등 공간환경이 개별 프로젝트 위주로 기획되어 주변 도시환경과 부조화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해결점을 찾기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네덜란드는 국가건축가, 바로셀로나는 총괄건축가, 베를린은 빌딩 디렉터라는 제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공간과 환경을 만들고 건축문화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영주시에서 시장 직속으로 ‘디자인 관리단’을 설치하여 영주시 공공건축사업을 통합·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 점에 착안해 행정적 실행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사업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총괄기획 및 조정·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것이 총괄건축가 제도입니다.

지난 10월 발표한 민선 6기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도시재생분야에서는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을 내년부터 ‘도시재생본부’로 통합한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건축가는 서울의 공공건축물 및 건축,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별 실국 단위로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조율하여 상호 협력의 길을 제시하고, 건축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 중심의 공간환경 조성으로 건축의 문화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 등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각 실과 국에서 분산·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발굴 및 수립 중심의 ‘실’단위에서 실행력을 강조하는 ‘본부’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안전문제부터 주변지역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세월호 이후 ‘안전’이 우리사회의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는 국내 사상 초유의 초고층 건축물로서 임시사용승인에 있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롯데가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함에 따라 관련법령 검토, 시정현안회의, 유관기관협의 및 시민자문단과의 수차례 회의를 거쳐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이 **잠실역 사거리 교통 혼잡 최소화**와 **초고층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대책**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롯데에서 보완·제출한 보완서 검토 결과, 보완 조치된 사항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가적으로 임시사용승인 전 **프리오픈(pre-open)**을 실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임시사용 승인구간을 둘러보게 하는 한편 관계 전문가 등을 통해 안전, 교통, 방재 등에 대해 추가로 면밀한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건물 완공 때까지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시민 자문단 및 교통대책 TFT’를 운영하고, 지반침하계 등 각종 계측결과와 교통상황 모니터링 결과 등을 제2롯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불안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예약제, 주차요금 전면 유료화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이행하도록 하고, 개장 후 교통 혼잡 증가 시 주차장 폐쇄 등을 포함한 추가조치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교통영향 분석을 한 결과 저층부 개장 초기에는 방문객의 집중 등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체계개선사업(TSM), 주차예약제 및 유료화 등 교통대책을 실시하여 교통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주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집값은 도시근로자가 매년 한 푼도 쓰지 않고 8.8년(연평균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모아야 살 수 있을 만큼 매우 높고, 빌려 살기도 버거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임차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가 넘을 정도로 임대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6년간 전세가격은 50%이상 상승해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역대 최고치(’01.9월, 64.6%)를 갱



정아숙 편집위원(좌)와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우)

신하여 현재 6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여건 속에서 서울은 다양한 소득수준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울을 한번 둘러보면, 어디서든 보이는 것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주거형태는 몇 개의 정형화된 규모와 내부구조로 이루어진 획일적 유형의 대표이며, 중산층 이상의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소득수준에 맞는, 개별적인 삶의 패턴이 묻어나는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존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삶을 규정하는 그릇’이 아닌, ‘개인의 삶을 담는 그릇’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우리 건축사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몇 년 사이 서울 도심 곳곳에 작지만 큰집들이 속속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복잡한 대지 조건에서도 건축사의 설계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디자인된 주택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건축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단일개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간 연계성을 단절시키고 주변 지역과 부조화를 이루는 점적개발, 지역성의 상실, 공동체를 파괴하는 획일적 개발의 시대는 끝나고 다양성이 대세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주택을 함께 만드는 공동체가 기본’**이 되는 소규모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성미산마을에 위치한 ‘소행

“공동체주택의 기본은 건축사의 설계뿐 아니라 ‘모듬살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

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입니다. 마음 맞는 몇몇이서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인데, 소행주 외에도 새동네, 우주 등 다양한 소규모 맞춤형 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대세 흐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적극 지원해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 주택의 신축개량 등 ‘제자리 건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학생공모전 등을 통해 학생과 전문가와 공유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주택의 기본은 건축사가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가지는 공동체의 개념, 즉 ‘모듬살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에서부터 private, share의 개념이 잘 적용되기만 해도 작지만 큰 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주택을 계획한다면, 침실, 욕실과 같이 개인의 사적인 공간과 부엌, 서재, 세탁실, 창고 등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하고,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4세대 기준 7~10㎡(2~3평)씩만 제외한다고 하면, 28~40㎡(8~12평)라는 새로운 공간이 확보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작지만 크고, 함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맞춰가며 모듬살이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주거문화로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있으며, 두레약속을 통해서 협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가구가 입주하는 집에 할아버지 한 분과 독신여성 4가구가 입주했습니다. 여담으로 1층에 거주하시는 할아버지의 실내흡연 문제로 2층에 거주하는 독신 여성분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레약속을 통해서 ‘실내흡연 금지’ 조항을 신설, 약속을 통해 할아버지께서 실내에서는 흡연을 중단하시게 되었고, 최근 금연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두레주택 전경(방학동 393-16)



실제로,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봉구 방학동의 두레주택의 경우,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방과 화장실은 개인공간으로, 거실과 주방은 공용으로 구성되



두레주택 리모델링 전후



기양동 이음체 육아주거협동조합주택(강서구 기양동 1494-3)

대한건축사협회와 전국의 건축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건축은 ‘공학’이라고도 하고, 혹은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건축의 ‘인문학’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건축사들이 작가주의에 치우쳐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리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고, 거주하는 사람의 특성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건축의 내부공간은 사람의 성품과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의 얼굴은 결혼식 30분’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 역시 지나친 작가주의에 치우쳐 화려한 외관구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 되어 ‘편리한 내부 공간구성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건축의 사회적 위상에 대하여 논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로서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노력하고, 집단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공적 기여에 대하여도 고민할 때입니다. 제가 공공의 입장에 있다 보니,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소득 서민의 주택을 개량하는 해비타트 운동 등에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축을 알리고, 일반인들과 공감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건축계에 바람이 있다면, 외부적으로는 건축에 대해 알리고 교류하는 보편화가 중요하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건축계는 크게 3단체가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의 위치에서 UIA(국제건축사연맹)총회 준비에 함께 참여해보니, 이 단체들 간 화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열 혹은 갈등이 일부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건축이 설계, 시공, 구조, 설비, 인테리어 등 분야별로 세분되어 있고, 각 단체별 설립목적이나 취지 등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건축’이라는 공통분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건축대회를 기점으로 3단체가 다양성과 함께 통합된 결집력을 모아 한마음으로 대회를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건축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안도 다다오(Ando Tadao), 렘 콜하스(Rem Koolhaas), 장 누벨(Jean Nouvel), 자하 하디드(Zaha Hadid)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보면, 그들은 성인이 아닙니다. 단지 훌륭한 건축사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세계적인 건축사들이 있습니까?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풍토가 이들을 세계적인 건축사들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층 성숙해져 소소한 흠이 있더라도 그러한 단점을 침소봉대하여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오랜 시간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 개편되는 도시재생본부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건축사분들의 좋은 의견에 귀 기울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 문화를 만드는 데 건축사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당동 다가구주택

Sindangdong Multiplex House



설계자 | 임희선_KIRA | (주)도씨에 건축사 사무소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준석사과정(Postgraduate Diploma)을 수학하였다. 서한 건축사사무소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히고, (주)도씨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현재 노원구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설계자 | 김은미_BNA | 대한건축사협회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건축학 학사,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최근 제일모직 한남동 사옥 입면, 상원 F&B 사옥, 방배동 힐스 나인 등을 작업하였으며, 현재 평창 철도역사를 설계하고 있다.

- 설계팀 : 손의정, 김지현, 김승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나라구조
 - 기계설비분야 : 세진ENE
 - 전기분야 : 하이플랜

건축주 | 박철용

감리자 | 임희선

시공사 | 위탁시공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93-16번지

주요용도 | 다가구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132.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76.25㎡

연면적(Gross Floor Area) | 303.8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7.77%

용적률(Floor Area Ratio) | 170.93%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T0.7 칼라강판 수직돌출이음, 청고벽돌, 스타코, T18칼라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6~1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3~11

사진(Photographer) | 장영수(Jang, Young-suu)

Client | Park, Chul-yong

Architect | Lim, Hee-sun Kim, Eun-mee

Project team | Sohn,Eui-joung Kim, Ji-hyun Kim, Seoung-hyun

General Contractor | Construction on Consignment

Location | 393-16, Shindang-dong, Jung-gu, Seoul,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tructure Engineer | Nara Engineering

HVAC Engineer | Sejin ENE

Electrical Engineer | High Plan Engineering

Finishing | Brick, Zink

서울 신당동 광희문 인근 다세대 밀집지역에 위치한 이 다가구주택은 몇 가지 제약 요소가 있었다. 인근 성벽으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받았고, 좁은 도로에 비해 뽀뽀하게 자리 잡은 다가구주택과 생활 공장들로 인해 많은 이해관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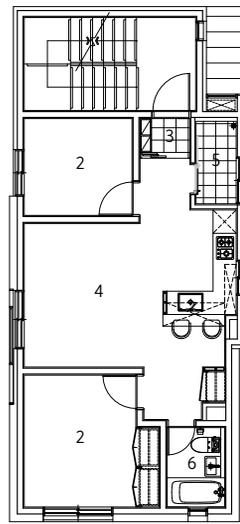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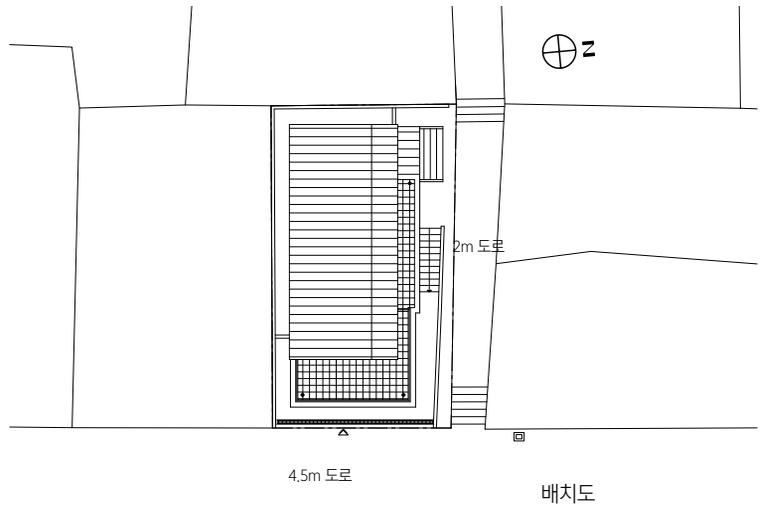
이런 유형의 건축물은 여타 목적의 건축물에 비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덜 신경 써서 지어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자 과제였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 우리는 몇 가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실용성과 이용성은 최대한 하되 균형의 감각은 유지한다'를 프로젝트의 방향이자 기준으로 삼았다. 사실 좁은 대지면적에 최대 용적을 만들고 예산 수준을 맞추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평이하지만 기준을 만들어야 한쪽 요소만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매스와 입면계획에서는 인접 건물들과 형태나 재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지는 않는 대신 조용하게 재료와 비례에서의 질서를 밖으로 내뿜으며 존재를 알리도록 계획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이 걸려 있어 인접 건물과는 달리 3층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삼층은 유용한 층고의 다락방을 계획하여 효용성을 최대한 높이려 했고, 같은 이유로 박공지붕만을 계획하여야 하지만 다락방 공간을 최대한 이용한 옥탑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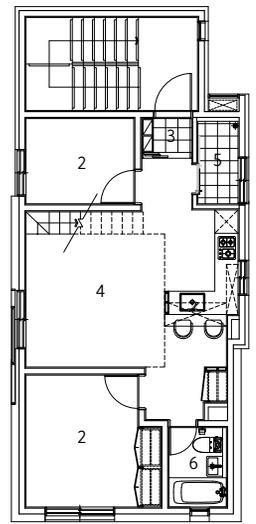
이러한 예산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는 직접발주 시공으로 해결해 나갔다. 건축주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했던 이번 프로젝트는 소규모 저예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질 좋은 건축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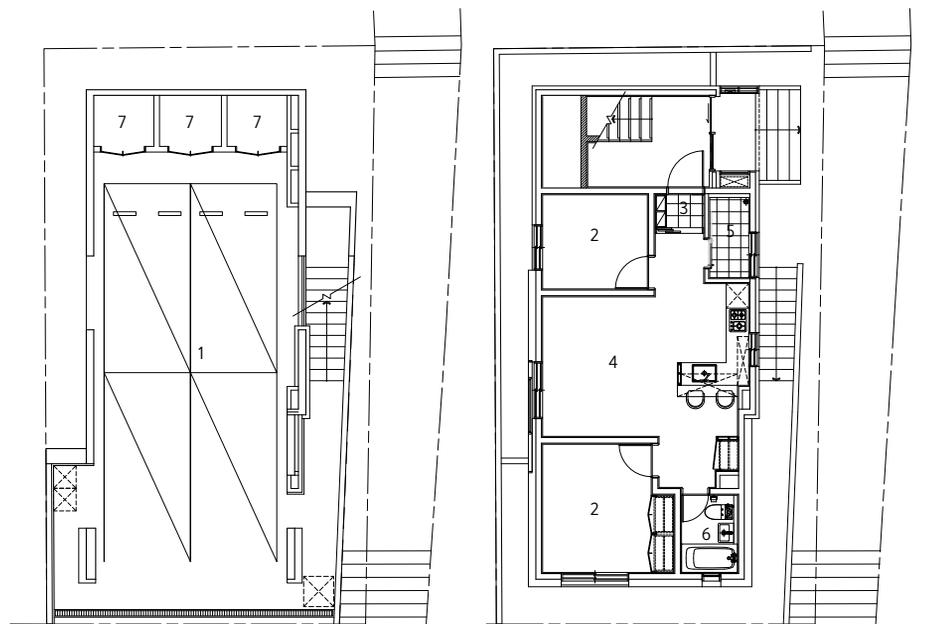




지상2층 평면도



지상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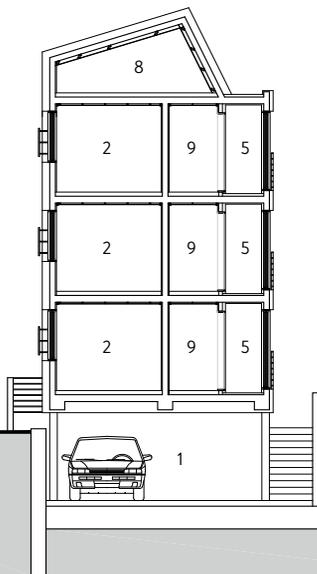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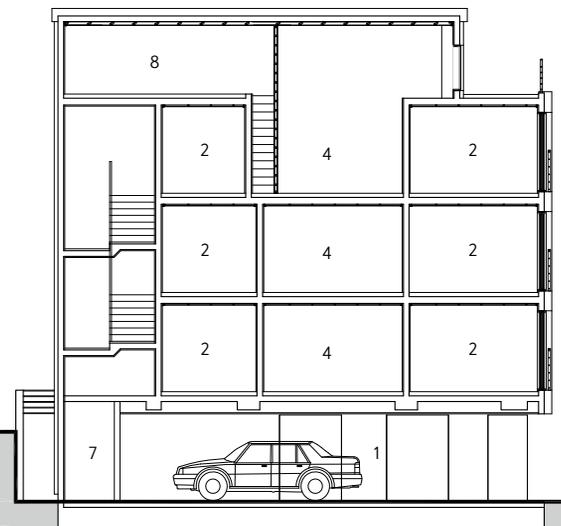
지상층 평면도



1. 주차장 2. 침실 3. 현관 4. 거실 겸 주방 5. 다용도실 6. 화장실 7. 창고 8. 다락방 9. 복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노학동 오디오 하우스

Nohakdong Audio House



설계자 | 임희선_KIRA | (주)도씨에 건축사 사무소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준석사과정(Postgraduate Diploma)을 수학하였다. 서한 건축사사무소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히고, (주)도씨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현재 노원구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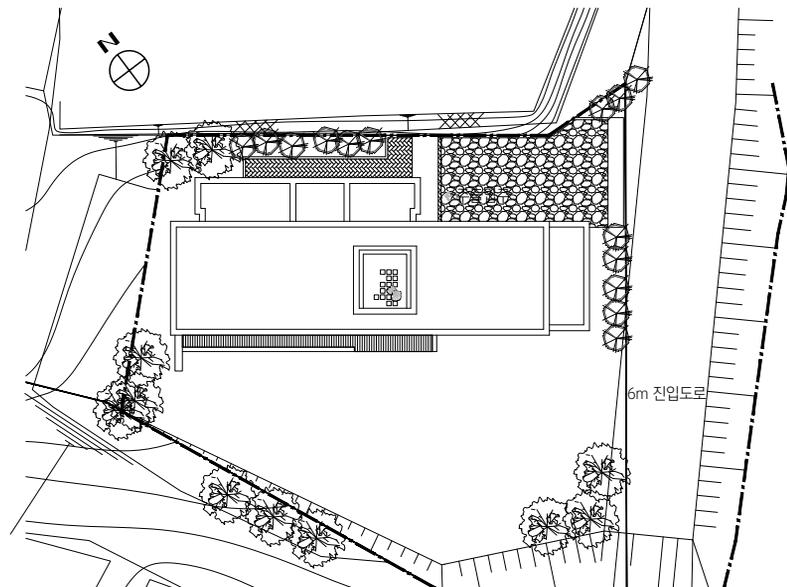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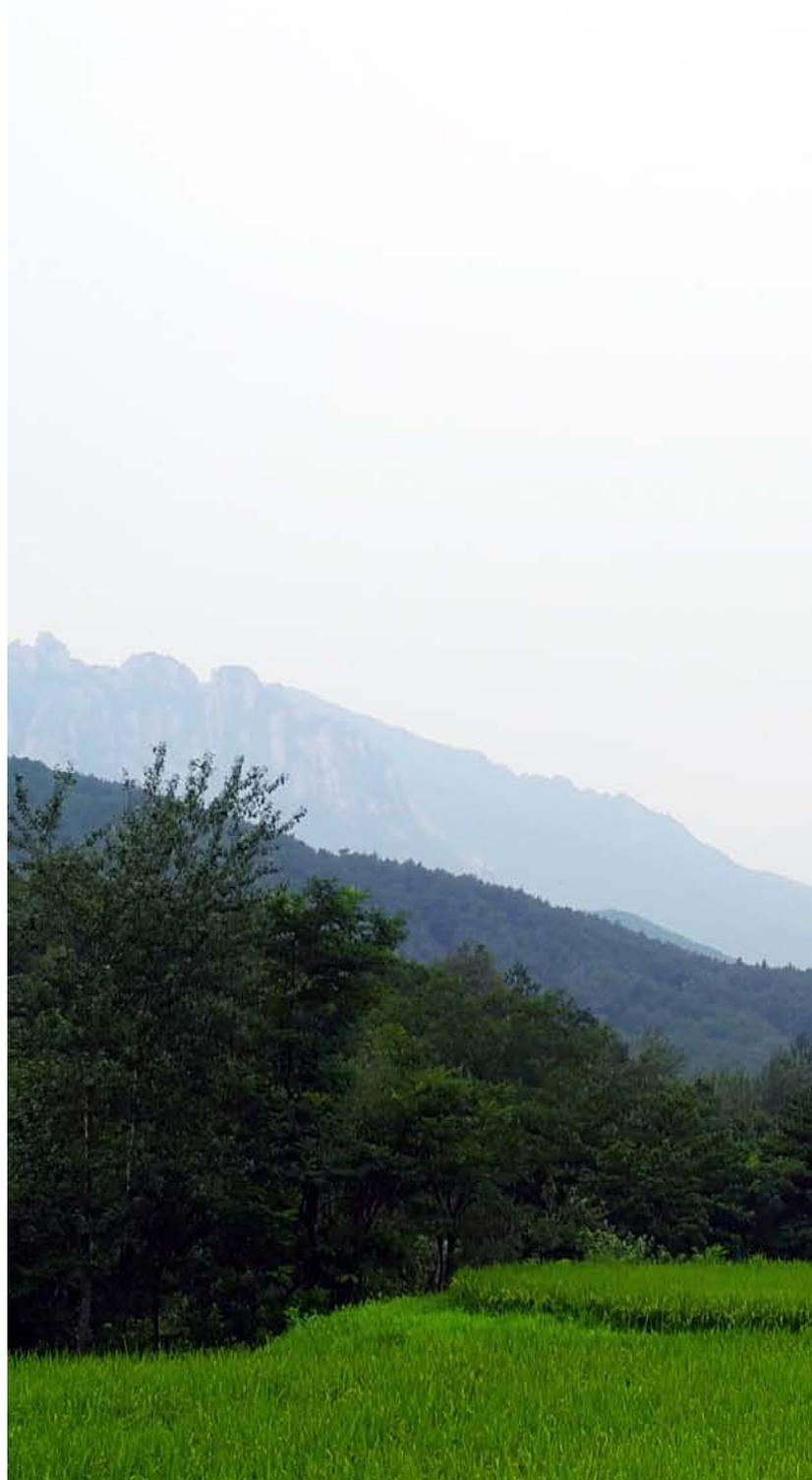
설계자 | 김은미_BNA | 대한건축사협회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건축학 학사,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최근 제일모직 한남동 사옥 입면, 상원 F&B 사옥, 방배동 힐스 나인 등을 작업하였으며, 현재 평창 철도역사를 설계하고 있다.

- 설계팀 : 손의정, 김지현, 김승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나라구조
 - 기계설비분야 : 세진ENE
 - 전기분야 : 하이플랜

건축주 | 김복식
 감리자 | 임희선
 시공사 | 위탁시공

대지위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1,656.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44.89㎡
 연면적(Gross Floor Area) | 311.5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4.79% (법정: 20%)
 용적률(Floor Area Ratio) | 18.81% (법정: 100%)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 마감재 | T30 현무암 판석, T30 샌드스톤, 슬레이트 파석 패널 붙임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5~. 9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10~2014. 6
 사진(Photographer) | 김은미(Kim, Eun-mee), 김승현(Kim, Seung-hyun)

Client | Kim, Bok-sik
Architect | Lim, Hee-sun Kim, Eun-mee
 Project team | Sohn, Eui-joung Kim, Ji-hyun Kim, Seoung-hyun
General Contractor | Construction on Consignment
Location | Nohak-dong, Sokcho-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Engineer | Nara Engineering
HVAC Engineer | Sejin ENE
Electrical Engineer | High Plan Engineering
Finishing | T30 Sandstone, Basalt Stone





울산바위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 속초 노학동 대지에 새로이 보유했던 오디오를 위한 집을 설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건축주가 일주일 중 절반 정도를 보내게 될 이 집은 일반 단독주택의 평상성과 듣고 즐기는 풍경의 무게 잡기로 시작되었다.

집은 작은 마을의 도로를 따라 그 길 끝에 위치한다. 울산바위의 경치가 펼쳐지는 남측이 다른 대지 없어 곧장 숲으로 이어져 개방성과 근·원경 풍경 모두를 지닌, 세컨드 하우스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다.

건물은 정문을 통과해 바로 만나는 '삼대(三代)를 위한 주차장', 1층 '오디오 거실', 그리고 2층의 '개인공간', 이렇게 세 개의 매스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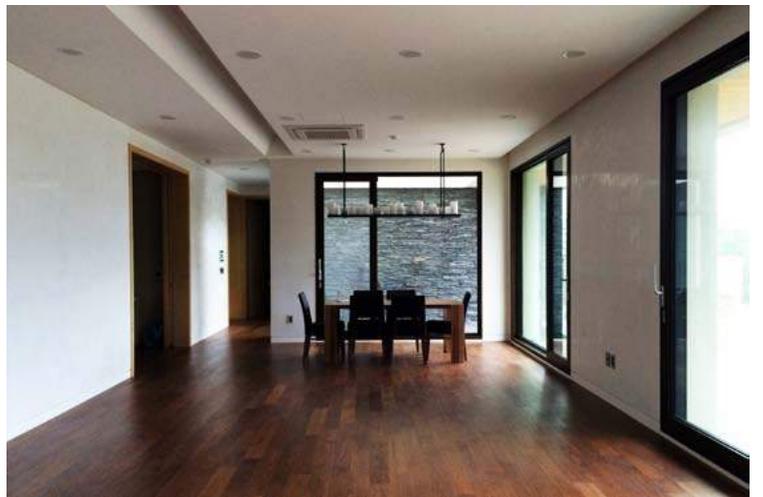
바람이 너무 심해 학이 고개를 넘지 못했다는 의미의 '학사평'이라 불리는 지역이기에, 집으로 진입할 때 바람과 눈으로부터 막아주는 동시에 삼대가 모여도 거뜬할 주차장을 계획하였다. 이 매스는 철평석으로 마감하여 단단한 느낌을 주었고, 서측 끝은 인접 세대와 최소한의 경계를 형성해주며, 바람과 눈을 막아주는 날개벽은 주차장과 같은 재질로 마감하였다. 이 두 개의 하단

구조물은 2층 매스를 부유하는 듯한 느낌으로 받쳐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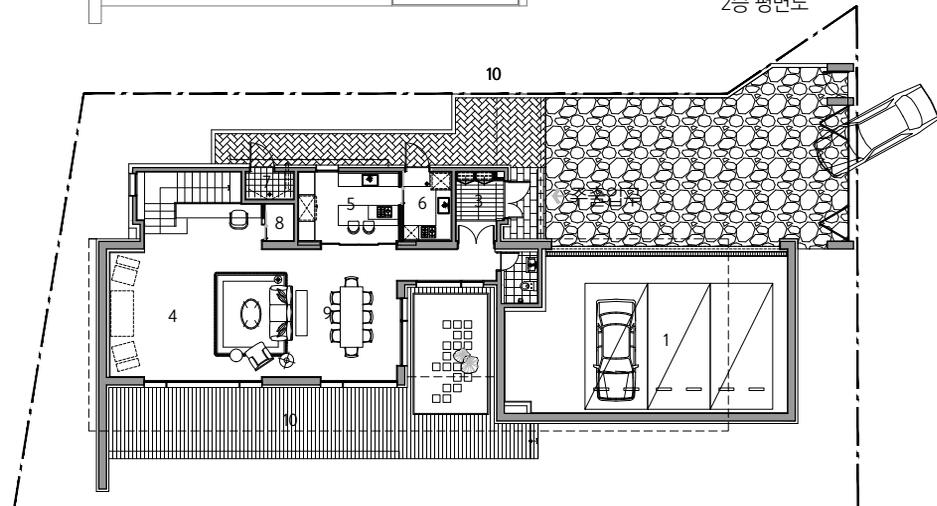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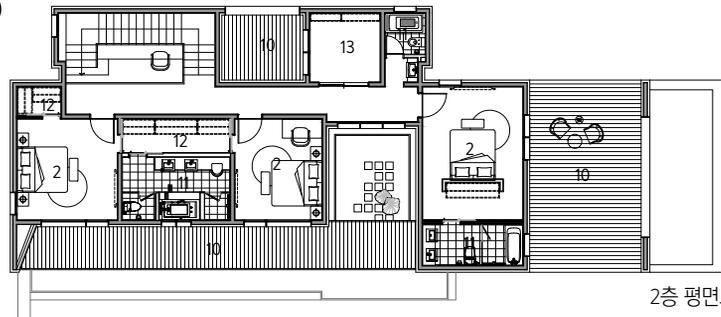
건축주가 오디오를 즐기는 방식은 일반적인 오디오 마니아와는 달리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듣기를 원했다. 신축하는 단독주택에 사운드 질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대형 밀폐형 감상실을 계획할 수도 있었지만, 갇히기 싫어질 만큼의 멋진 주변 풍광이 있을 뿐더러 때때로 이 공간에서 삼대가 모일 계획이기에 함께 감상하고 싶은 바람이 감상공간을 거실로 낙점하게 하였다.

1층에서도 마당과 함께 원경의 풍경을 즐길 수 있지만, 2층에서 만나는 울산바위의 풍경은 더욱 훌륭하기에 침실과 욕조에서 바깥 풍광을 조망할 수 있게 계획하였으며, 게스트 침실에는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데스크를 만들어 개별성과 쾌적성을 부여했다.

인접 세대들은 주변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의 바위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싼 대지 풍경과 하나의 그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계하였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으로 주요 내부공간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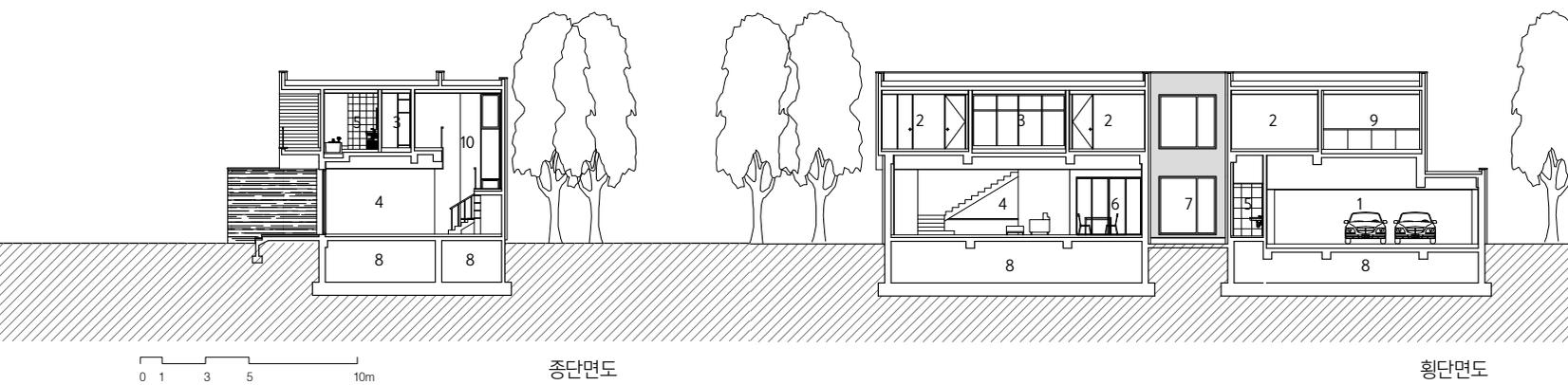
- 1. 주차장
- 2. 침실
- 3. 현관
- 4. 거실
- 5. 주방
- 6. 다용도실
- 7. 보일러실
- 8. 창고
- 9. 다이닝룸
- 10. 데크
- 11. 화장실
- 12. 드레스룸
- 13. 멀티룸



0 1 3 5 10m



1. 주차장 2. 침실 3. 드레스룸 4. 거실 5. 화장실 6. 다이닝룸 7. 수공간 8. 피트 9.데크 10. 계단실



신당동 다가구주택

Sindangdong Multiplex House



설계자 | 임희선_KIRA | (주)도씨에 건축사 사무소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준석사과정(Postgraduate Diploma)을 수학하였다. 서한 건축사사무소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히고, (주)도씨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현재 노원구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설계자 | 김은미_BNA | 대한건축사협회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건축학 학사,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최근 제일모직 한남동 사옥 입면, 상원 F&B 사옥, 방배동 힐스 나인 등을 작업하였으며, 현재 평창 철도역사를 설계하고 있다.

- 설계팀 : 손의정, 김지현, 김승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나라구조
 - 기계설비분야 : 세진ENE
 - 전기분야 : 하이플랜

건축주 | 박철용

감리자 | 임희선

시공사 | 위탁시공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93-16번지

주요용도 | 다가구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132.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76.25㎡

연면적(Gross Floor Area) | 303.8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7.77%

용적률(Floor Area Ratio) | 170.93%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T0.7 칼라강판 수직돌출이음, 청고벽돌, 스타코, T18칼라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6~1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3~11

사진(Photographer) | 장영수(Jang, Young-suu)

Client | Park, Chul-yong

Architect | Lim, Hee-sun Kim, Eun-mee

Project team | Sohn, Eui-joung Kim, Ji-hyun Kim, Seoung-hyun

General Contractor | Construction on Consignment

Location | 393-16, Shindang-dong, Jung-gu, Seoul,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tructure Engineer | Nara Engineering

HVAC Engineer | Sejin ENE

Electrical Engineer | High Plan Engineering

Finishing | Brick, Z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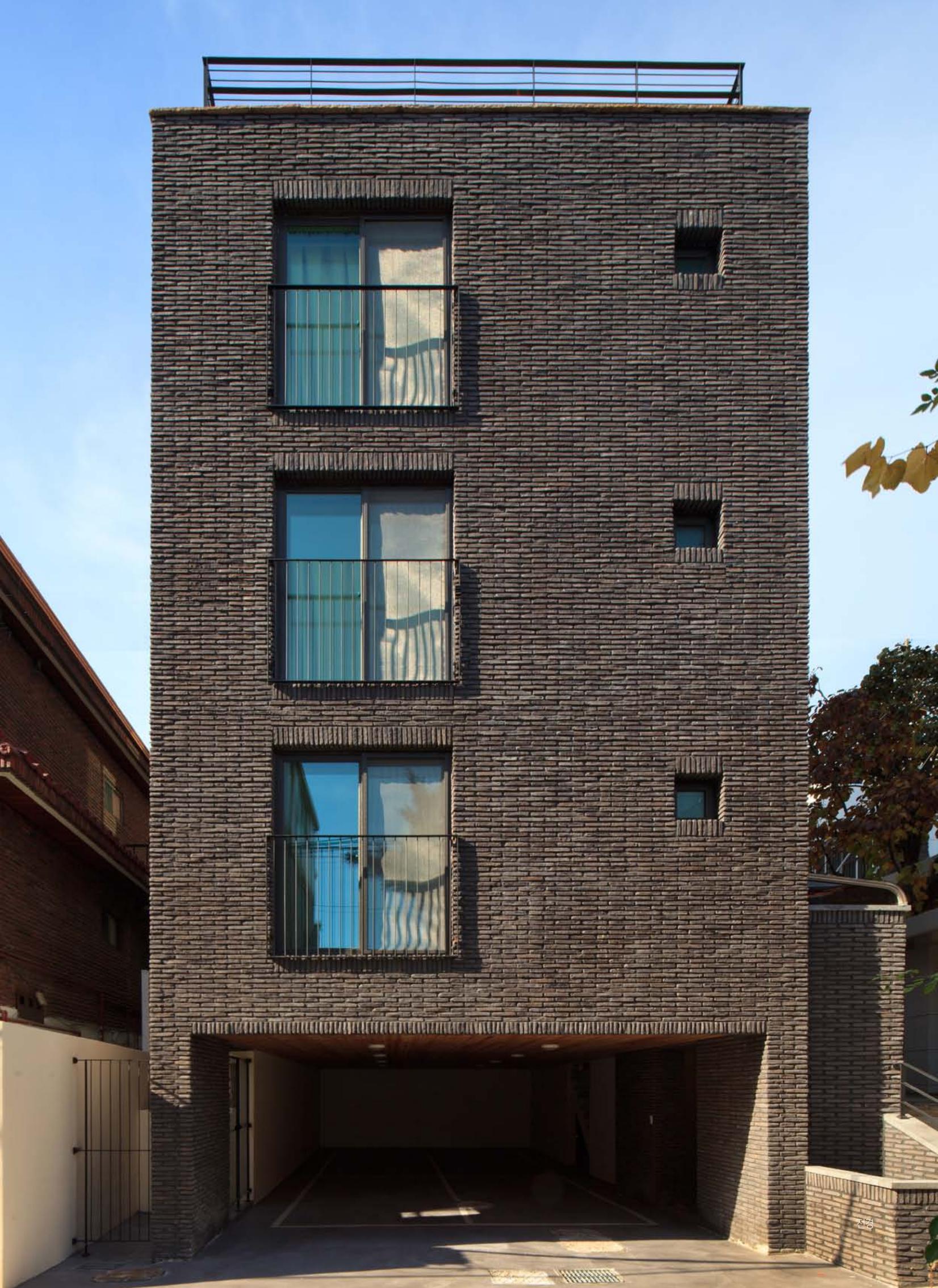
서울 신당동 광희문 인근 다세대 밀집지역에 위치한 이 다가구주택은 몇 가지 제약 요소가 있었다. 인근 성벽으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받았고, 좁은 도로에 비해 뽀뽀하게 자리 잡은 다가구주택과 생활 공장들로 인해 많은 이해관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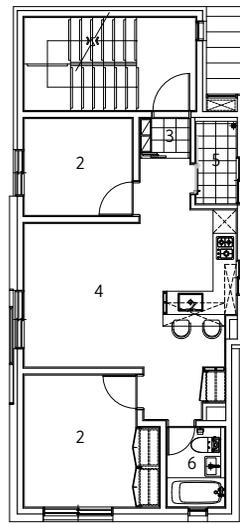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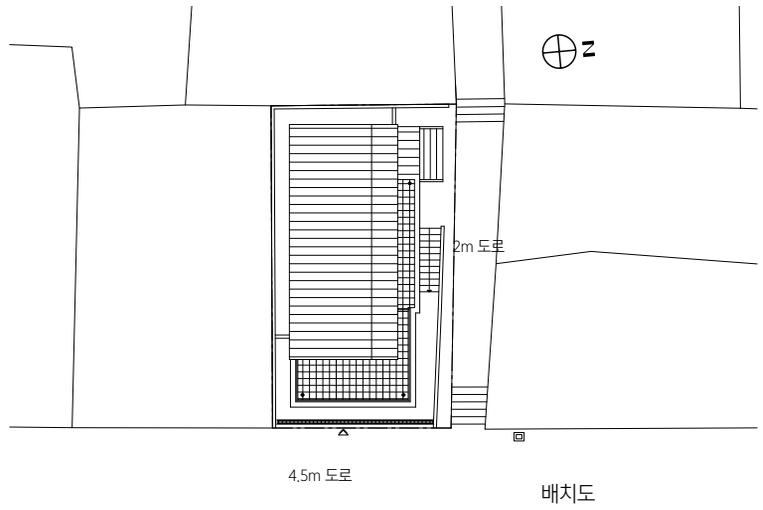
이런 유형의 건축물은 여타 목적의 건축물에 비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덜 신경 써서 지어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자 과제였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 우리는 몇 가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실용성과 이용성은 최대한 하되 균형의 감각은 유지한다'를 프로젝트의 방향이자 기준으로 삼았다. 사실 좁은 대지면적에 최대 용적을 만들고 예산 수준을 맞추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평이하지만 기준을 만들어야 한쪽 요소만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매스와 입면계획에서는 인접 건물들과 형태나 재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지는 않는 대신 조용하게 재료와 비례에서의 질서를 밖으로 내뿜으며 존재를 알리도록 계획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이 걸려 있어 인접 건물과는 달리 3층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삼층은 유용한 층고의 다락방을 계획하여 효용성을 최대한 높이려 했고, 같은 이유로 박공지붕만을 계획하여야 하지만 다락방 공간을 최대한 이용한 옥탑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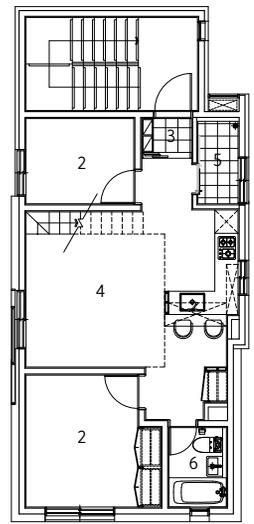
이러한 예산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는 직접발주 시공으로 해결해 나갔다. 건축주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했던 이번 프로젝트는 소규모 저예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질 좋은 건축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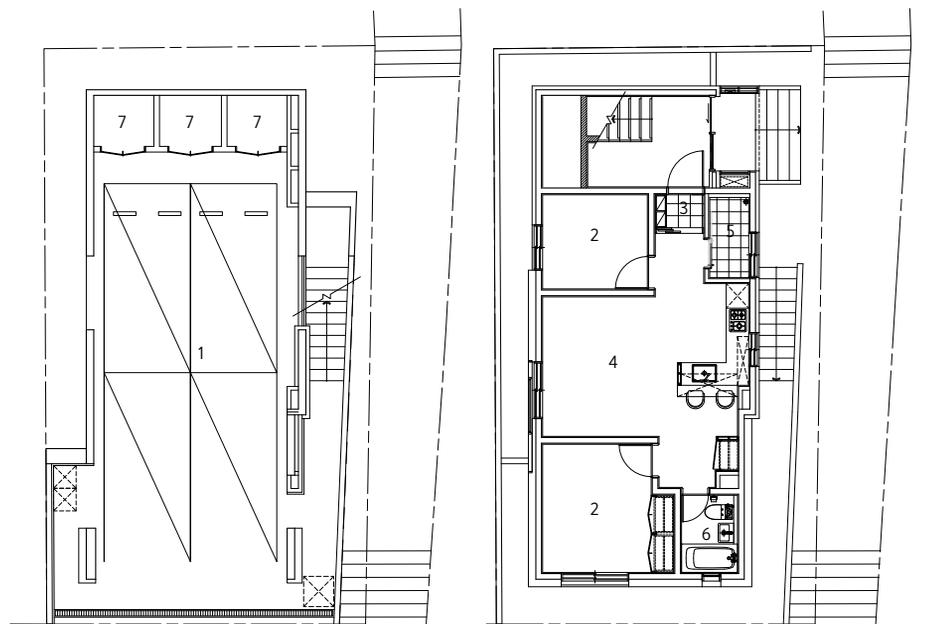




지상2층 평면도



지상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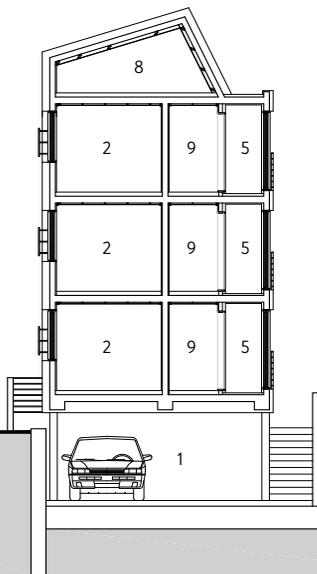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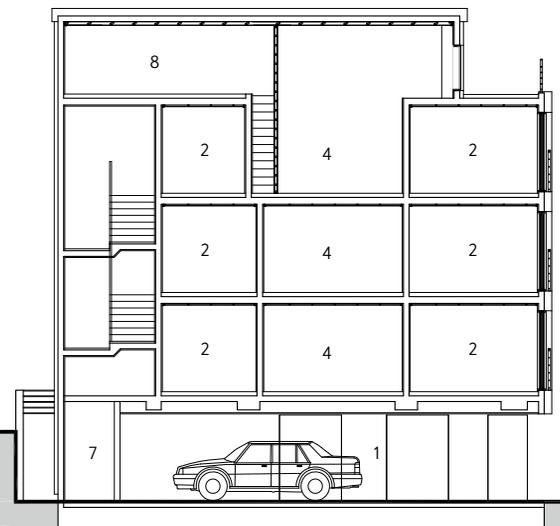
지상층 평면도



1. 주차장 2. 침실 3. 현관 4. 거실 겸 주방 5. 다용도실 6. 화장실 7. 창고 8. 다락방 9. 복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The 31st joint debate among the candidates for KIRA / Je-ju region

대한건축사협회 제31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제주권역>

일 시 : 2014년 12월 10일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관

사 회 : 권연하 건축사

좌 장 : 선은수 건축사

후보자 : 기호1번 강석후 기호2번 김영수 기호3번 이창섭 기호4번 정태복 기호5번 조충기



사회자 :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1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제 31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제주도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협회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금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신 후보자분들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기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강석후 후보, 기호 2번 김영수 후보, 기호 3번 이창석 후보님, 기호 4번 정태복 후보, 기호 5번 조충기 후보입니다. 좌장은 제주도건축사회 선은수 건축사가 맡았습니다.

오늘 토론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석 질의는 직접 받지 않고 미리 질의서를 제출 받아 질의응답순서를 갖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제31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일곱 번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좌장 : 오늘 개최되는 협회 제31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진행을 맡은 건축사 선은수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선거인인 회원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진행방법을 간략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자리배치입니다. 오늘 토론회 회장 후보자의 자리배치는 토론회 시작 전에 추첨을 통해 추첨결과 빠른 번호 순으로 좌장의 옆자리부터 착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후보자 기조연설입니다. 연설시간은 후보자 당 5분 이내이며 연설순서는 좌장을 기준으로 좌장의 옆자리 후보자부터 자리배치 순으로 연설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질의응답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의답변입니다. 공통질의답변 문항수는 권역 당 3개 문항이고, 질의응답시간은 질의 1분 이내, 답변 2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공통질의답변 순서는 자리배치 순으로 하되, 문항별로 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 상호간 또는 역질의 답변입니다. 질의응답시간은 질의 1분 이내, 답변 2분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후보자간 상호질의는 한 후보자 당 타 후보자 2인에게 1개 문항 씩 질의를 하고, 후보자간 역질의는 한 후보자 당 타 후보자 1인에게 1회 역질의 하겠습니다. 후보자간 상호질의는 타 후보에 대한 공약, 정책, 기타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역질의는 상대후보가 질의하는 것과 직접성이 있는 것으로 국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청석 질의입니다. 토론회 중간 휴식시간 종료 전까지 질의내용을 사전제출을 받고 특정후보자에게 질의가 집중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참관위원과 좌장이 선별하여 분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직접적인 개별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발언입니다. 마무리 발언시간은 후보자당 3분 이내이며, 발언순서는 후보자 기조연설 역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론회 진행방법을 알려드리며, 토론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별 발언제한 시간 20초 전에 1차 타종한 후에 제한시간이 초과될 경우는 수차례 타종할 예정이오니, 후보자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설시간 5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조 2번 김영수 후보자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연단으로 이동하셔서 연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도시 제주에서 첫 번째로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 후보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만여 건축사 회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건축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이끌어 오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30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정신포로 달려왔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고 효율적인 협회 운영을 바탕으로 대한건축사협회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저와 협회 임직원은 모

두 오로지 회원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랜 적폐를 해소하고 굽은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룬 성과와 진전은 오직 한결 같은 믿음으로 성원 해주신 회원 여러분의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위탁사업 확대로 협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였고, 건축사의 특허기술자 인정, 현장조사공사 대가기준 개정, 공공기관의 발주사업의 설계대가 현실화를 하였습니다.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건축물 안전종합대책 등을 정부 및 연구기관과 공유하여 설계 및 직업 관행을 개선 중이며, 민간설계대가 기준 제정과 선진화된 설계표준계약서의 개발 사업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내며 근검절약과 배움의 중요성을 배웠고, 주경야독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난관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당당히 맞서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저 김영수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당당한 협회 50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절대로 한 개인의 영광으로 탐할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약속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희망을 약속하고, 약속한 희망을 실현하는 것이 회장의 직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협회는 업무 추진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단 없는 전진, 제가 한 번 더 출마한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건축사 업무에 직결되는 법제도의 개선은 정부의 입장과 타 분야와의 이해관계, 국회 일정 등으로 유동적이며, 성과 여부 또한 매우 확신할 수 없

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동안 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온 설계·감리제도 관련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일관성 있고 빈틈없이 이루어내야 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건축사의 업역 확대와 위상 제고에 기결된다고 확신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협회의 현재도 없고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협회 봉사를 이 문제 해결과 실천에 바치고자 합니다. 임기 내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감리비예치제, 감리의 책임한계 법제화, 사후설계 관리제도의 정착, 유지관리제도의 정착 및 허가제도의 개선, 설계변경대가의 현실화, 건축사 장학 지원 등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거보다는 협회가 우선적이고 중요합니다. 선거에 나갈 때까지 협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건축사, 하나 되는 협회, 하나 되는 건축계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 김영수와 함께 하나 되어 대우받는 건축사, 찬란한 미래의 대한건축사협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호2번 김영수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 : 다음은 기호 4번 정태복 후보자께서 기초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정태복 :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세계의 자연유산 제주특별자치도 107명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지역 단일후보로 출마한 기호 4번 정태복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난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고 우리 협회가 그렇습니다. 앞뒤가 꼭 막혀서 갑갑해 하기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8월 현재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가 9,286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등록회원 수가 10,000여명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협회도 새 집행부가 등장한 지 2년의 임기가 다 채워져 가고 있지만 약속했던 회원의 생동과 미래를 위해 해놓은 게 뭐하나 뚜렷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단한 뭔가를 해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국토교통부니 국회니 관련단체니 하나씩 책임 소재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다지 많지도 않는 건축인 우리 모두가 싸움판에 뒤엉켜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주도해야 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기대와 달리 너무 무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저말 다 들어주려다, 때로는 이 말도 저 말도 외면하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건축경기는 그 끝을 모르고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건축경기가 복원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건축의 미래라고 해야 할 건축학도들은 졸업을 앞두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부모의 등지를 다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 부실은 우리 건축사들을 비방과 소극에 몰들게 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적은 회원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협회의 애로사항보다는 총체적 문제에 빠져 있는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게 더 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존재 목적은 회원의 행복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만약 저에게 회장으로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협회의 당면 현안 면밀히 검토해서 그 해결의 정책대안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첫째, 미래지향적 조직원으로 본부협회를 연합회로, 시·도건축사회를 법인화하여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건축사회 규모별 분담금제도 도입과 월정회비제도 폐지, 책임이사제 도입으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협회 부설 영리회사 설립 등 실정에 맞는 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재정자립 기반 확충과 건축서비스산업연수원 설치·운영을 기반으로 설계인력 양성과 수익사업을 연계하도록 하여 작지만 강한 협회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둘째, 생존권 확대를 추진하는 협회로서, 상주감리 대상의 모든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를 포함한 감리제도개선 입법 마무리 및 시행과 더불어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업무 대가 현실화와 그 범위 확대, 기획설계 전국 동시 등록제도 등 새로운 회원 행복시대를 준비하는 큰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와 소통을 위해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현실화 추진과 중소형 건축물 상주감리 대상 총량제 실시와 더불어서 대국민 봉사활동을 통한 공보 강화와 회원회합 단결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대항하기 위해서 회장비상집무캠프를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설계겸업 저지가 아니고 금지 원점화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서 설계자감리의 법정화와 현 건축신고제를 100% 허가제로 전환하는 대업도 반드시 이루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특별자치도 회원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회원들이 쓰다고 외면하는 약이라도 몸에 좋다고 판단되면 먹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왜 잘사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그들의 집중력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빈자와 부자를 가르는 경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협회의 미래도, 리더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빛

내주시고 채워주신 우리 제주도건축사 회원 여러분과 관계자들과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협회에 필요한 강한 협회, 신뢰할 수 있는 협회, 반드시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다음은 기호 5번 조충기 후보자께서 기조연설 해주시겠습니다.



조충기 : 존경하는 175명의 제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49년 된 젊은 협회입니다. 여러분, 협회는 회원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은 협회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협회의 운영은 회원 여러분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배고픔을 무릅쓰고 건축을 수행하여

업적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묵묵한 작업 속에 잊힌 경우가 더 많았던 건축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의문은 협회의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이며, 회원의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업역과 저렴한 교육비,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사들의 할 일과 책임은 과중하고 사고만 발생하면 우리 건축사들은 여론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건축사징계법을 건축사보호육성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원인자 처벌 등 건축법에 불리한 문제들은 개정하여 우리 건축법의 건기법, 건상법이 자리를 차지하고 엄청난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법다운 독립된 건축법을 구축하여 건축의 위상과 건축사의 권익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건축사 교육의 질은 높이고 교육비용은 낮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축에 대한 설계 본능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지원하고 회원을 하나로 묶는 자재, 시방, 법률, 계약, 세무, 홍보 등을 지원하는 건축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변신하지 않은 집단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전국 시·도건축사회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법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강력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원의 설계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회원의 설계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보호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본협의 실무교육, 회원실적 등 회원관련 업무는 과감히 시·도회에

위임, 위탁하여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개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 협회 개척을 위한 R&D에 과감한 투자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비대해진 본협을 슬림화하고 본협 사무처의 권위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처 조직을 국토부 조직 1부 3과에 걸맞은 조직으로 개편하여 정부정책을 긴밀히 논의하고 위적 대응체재를 구축하겠습니다. 물론,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에 국토부와와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 세종행정국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본협 회장에게 주어진 독점적 권한은 과감히 본협 집행부의 부회장과 각 위원회별로 위임·이양하여 대정부, 대국회, 대국민에 대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집중, 전념하도록 하여 협회설립목표에 충실화하고 회원권익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건축사를 모릅니다. 회장 직속의 건축홍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사의 위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회장 직속의 건축정책위원회를 두고 국회에 대응하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회원 직속의 행정위원회를 두어 대정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 협회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회원 여러분의 믿음과 결연한 의지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다음은 기호 1번 강석후 후보자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석후 : 오늘 제31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선거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주신 고봉규 회장님 이하, 제주도건축사회 회원여러분, 또 선거관리위원회 강성익 위원장님, 조성원 위원님, 권연하 위원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강석후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2년 전보다 여러분 사무실 여건이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매서운 추위가 우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빼앗길 것도 없고, 가질 것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성대는 학식과 덕이 지도자의 덕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이 변화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는 강력한 지도자만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계는 위기의 시대 속을 걷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해결하고 미래를 책임져줄 지혜와 용기가 가득 찬 명장이 필요합니다. 예리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힘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설계사무실 다닐 때는 비록 박봉이었지만, 제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있을 뿐,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작가는 없고 출판사와 화방만이 존재합니다. 정과 부가 뒤바뀐 입찰제도, 끊임없이 요구사항만 늘어가는 불평등 대가기준, 자신 의 고객을 고발해야 하는 감리제도, 무한 시의 행정처분, 공사비의 80%인 건축감리비보다 공사비 20% 전기감리비가 훨씬 더 많은 말도 되지 않은 이 같은 현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불평등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꿈꾸는 바보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30kg의 갑옷을 입은 중세기사들은 아무런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은 오리엔트 전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협회의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전문화시켜 기획 및 대정부 법제도 개선에 치중할 것이며,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스마트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저의 정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건축사와 건축사가족의 땀의 대가,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설계·감리 분리 법제화 대상 건축물 규모를 상주감리대상 규모 미만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여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사실무교육제도와 공제증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관공서에서는 건축사를 의무 채용하여 모든 건축허가를 무자격자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자인 공공건축사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에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빌더 제도 법제화를 서두를 것이며, 회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의 고충처리에 우선할 것이며,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가 전문가로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회,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호 1번 강석후가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건축사 회원 여러분, 두 번 속지 마시고 부디 해낼 수 있는 열정과 강한 의지가 있는 기호 1번 강석후에게 지지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다음은 기호 3번 이창섭 후보자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창섭 : 제31대 회장 후보 이창섭 인사드립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본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출마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떠한 생각으로 군번도 높는데 회장후보에 출마했느냐’ 그제 궁금하실 거라 믿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협회는 잘 돌아가지 못합니다. 잘 돌아가지 못하는 만큼 그만큼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 최대 문제점은 협회조직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집은 큼니다. 집행부 이사님들 많이 계시고, 사무국 배경에 있고, 또 각종 위원회가 50개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몇 명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외부가 변하는데 여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쫓아갈 뿐입니다. 협회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회원들께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우리 협회는 회장 한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구멍가게식 구조입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석부회장으로 협회에 2년간 봉직한 적이 있습니다. 수석부회장이라고 하면 근사할 것 같은데,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달에 두 번, 협회 회의에 가서 토론하고 거수해준 거밖에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 그분은 오랫동안 군사조직을 관리해왔습니다. 책임 있게 나라를 끌어갔습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우리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 많았잖습니까? 그분들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제대로 끌고 갔습니까? 우리나라가 풍비박산 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규모의 회사로 꾸려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제시하고 끊임없이 경영하고 끊임없이 확인 받고 있습니다. 입성하면 반듯하게 협회 기초를 제가 만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협회 존재이유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패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패기만 가

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싸웁니다. 싸우면 그대로 끝납니다. 노련한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누구보다 경쟁력이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정신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할 군번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관대해진다고 합니다. 가치관이 좀 변하게 됩니다.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되고, 보람된 일을 찾게 되고.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입성하게 되면 소모적인 해외방문, 절대 지양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한 푼, 두 푼 해준 돈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지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업을 조그맣게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고 측근들한테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무당이 됐습니다. 100%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아마 90% 정도는 제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십시오. 뜻은 좋지만 국정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밑에 사람한테 맨날 얻어맞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수장은 반듯한 덕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시간이 돼서 말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좌장 : 이상으로 후보자 기초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공통질의 응답순서입니다. 후보자분들께 질문하는 공통질문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원과 시·도건축사회 등으로부터 회장후보자에게 질문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이를 취합하여 권역별로 3개 문항씩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후보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질문하는 세 가지 공통질문사항 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질문사항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시급한 현안이 많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3가지와 회장에 당선되면 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대하여 말씀해주시시오'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계신 김영수 후보자부터 정태복 후보자, 조충기 후보자, 강석후 후보자, 이창섭 후보자 순으로 2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후보자부터 첫 번째 공통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시작해주시시오.



김영수 : 제가 우리협회 회장을 2년 하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 3가지는 첫째,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는 설계검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계검업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사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건축사자격을

전부 반납을 해서라도 이러한 설계검업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가 1년 동안 이러한 설계검업에 대해서 여러 관련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설계·감리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감리제도 개선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본 국회가 끝나고 14일부터 다음연도 15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회기 중에 우리 협회 사안인 설계·감리제도 개선이 법 과정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감리제도 개선이 법제화되고 다음에 시행령이나 관계법령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사의 위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위상은 우리 스스로가 정립하는 것이지 남이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건축은 공부해야 합니다.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건축이 공공에서 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복 : 크게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 협회대응조직을 작지만 강한 협회로 혁신토록 하겠습니다. 협회와 시·도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본부협회는 연합회로 전환해 정책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 강소조직으로 혁신하고, 시·도건축사회는 법인화하여 실무 중심 조직으로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본 단위 조직으로 육성·발전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회계 단일화로 책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협회 시도별·규모별 분단금을 기본 운영재원으로 하되,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시·도건축사회는 실적회비제 도입을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월정회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사제를 도입해서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조직 슬림화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경비 절감을 해서 우리본부의 현재 고문번호사를 예산 절감을 통해 구축된 비용으로 고용번호사로 전환해서 회원들의 법률상담과 협회 법제도 관련 개선에 집중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에 당선되면 선택과 집중의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조충기 :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설계감리, 공공감리, 독립된 건축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감리분리에 따른 설계 호도 위원은 설계건축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설계겸업 요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저지해야 하고, 설계감리 예치제 도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R&D 투자 등을 해서 우리의 미래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국민에 대한 홍보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번에 국민의 80% 이상이 건축사를 모릅니다. 이 모습들을 당면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협회, 비대하고 방만합니다. 이것을 슬림화하겠습니다. 상근부회장 내부 결제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국토행정부에 관한 전담을 하도록 하고, 회장의 권한은 법제 관련분야, 행정 관련분야, 홍보 관련분야를 위원회를 설치해서 회장과 법제 쪽은 국회를 전담을 하고 상근부회장은 행정 쪽의 업무를 강화를 해서 우리 협회가 좀 더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협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16개의 시·도회는 연합회가 아니라 협회 자치조직으로 법인화해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의 조직이 법인화되는 강력한 협회로 대국민·대정부·대국회를 상대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후 : 2분 안에 답하기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요, 제가 2분도 안 되서 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항, 중요한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생존권이죠. 지금 우리 협회 건축사들이 죽느냐, 사느냐, 생존권보다 가장 큰 비중이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집단도 국가도 그 생리상 존재이유는 생존과 확장입니다. 포춘지에 소개된 NRB 단체 존재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협회장은 대원칙에 대해 협회를 이끌어가면 됩니다. 이 이상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결국 건축사 업역을 보호

하느냐, 확장하느냐 문제 또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거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 시급한 현황 세 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처한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는 거대한 담론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한 조직이, 한 단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릿길도 한걸음이라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건축사 심의위원 POOL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원이 가능한 한 골고루 건축심의위원이 되면 그러한 제도를 협회차원에서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사무실들이 함께 공동주택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역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만 지금까지 매달렸는데 이왕이면 큰 것을 해서 감리전문회사에 뺏긴 걸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한 계약문화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 건축 보수대가 기준이 마련이 되어있지 않은데,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음, 설계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벌써 오래전 일인데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협회는 조직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에 기초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 :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사항입니다. '설계감리제도 개선에 대한 현 시점에서 문제해결방안 및 대책과 향후 대한건축사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제 옆으로 두 번째 자리에 계신 정태복 후보자께서 먼저 하시고, 다음은 조충기 후보자, 강석후 후보자, 이창섭 후보자, 김영수 후보자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복 : 먼저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발주부문 대가기준을 조속히 법제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설계자 감리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제화된 이후에도 유력한 준수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기획·계획설계 전국동시등록제도도 설계관련자에게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대가 현실화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지침 준수도 반드시 필요하

며, 현 건축신고제를 100% 건축허가제로 전환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계대가 현실화를 위한 실비 전액 가상방식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건축사 및 관계기술자의 책임한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감리관련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인 조치로 설계·감리분리 입법이 조기 완료된 후에 건축법과 건기법, 주축법으로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는 감리연구, 감리대가기준을 한데 묶어서 궁극적으로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후진건축을 추방함으로써 담보로 감리대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상주감리대상의 모든 건축물을 설계감리분리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형 건축물의 상주감리 대상의 총량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리자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한계에 대한 최소 법적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교육청 발주 감리물량이 지금 건축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본부 회장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기 : 현 시점의 문제해결방안은 우리 법에 관한 문제를 조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건축행정법인 건축법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주들은 자기 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것을 하고 있고, 건축사들은 여기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행정법은 국민들의 공리 증진을 이유로 이것을 반대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건축사들이 건축법의 행위를 지적 받으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국민으로부터 고용된 우리가 그런 쪽으로 행정권을 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헌법 소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조금은 비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 해야 할 공공복리 증진은 조사, 검사, 확인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고, 건축사의 설계·감리 의무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축주에게 고용된 건축사로서의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법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내에 잘 보시면, 25조 8항에 보면 건산법, 건기법,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것이 사실상 건축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려내어서 건축사다운 건축사다운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후 : 설계·감리제도 개선 그리고 문제해결, 대한건축사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3시간 정도 분량의 얘기를 단 2분 만에 하는 게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차트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감리분리 법제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깐 661과 495,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앞

로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700, 500, 먼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700㎡, 500㎡, 그래야 늘려갈 수 있는 거지, 661, 495 이 건설업면적기준을 왜 여기 들이댈까?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리물량 이거 간단해요. 시행령만 바꾸면 돼요. 법으로 바꿀 필요도 없어요. 시행령만 바꾸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국토부에서 협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부서에서 갖은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우리협회입니다. 여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법이 안 된다고요?

우리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으로서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이외에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협회는 회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노력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창섭 : 문제의 초점이 조금 많이 확대된 것 같아서, 조금 국한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의 취지를 ‘설계·감리분리제도가 입법화되고 있는데 향후 보안대책이나 개선점이 뭐냐?’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점에 대비를 했습니다. 설계·감리분리제도는 아마 입법화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이 됐을 경우, 다른 업종에서, 감리협회나 기술사협회에서, 차고 들어옵니다. 왜 당신들만 감리를 하느냐, 그 업무는 당신들의 고유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대책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현재 660㎡와 490㎡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660㎡ 이상과 5000㎡까지의 공백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단적으로 건축사 상주감리제도를 5000㎡에서 2000㎡까지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우리의 업역이 그만큼 커집니다. 또 2000㎡과 660㎡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 사이는 나중에 상주감리제도로 할 수 없고, 그래도 어정정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묶여가지고 한 사람이

몇 개를 지역별로 하면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한 한 상주감리제도로 묶으면 어떨겠느냐, 그래서 우리 건축사의 업역을 660㎡까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질문의 취지에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 저는 현 회장으로서는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시·도 회장님들과 이사님들, 바보가 아닙니다. 다 그분들이 검토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외부기관과의 협력, 그 다음에 국토부와의 관계, 이런 것을 다 감안한 상태에서 최적의 안으로서, 먼저 법적인 것만 바꾸기 위해서 법안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반대하면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소한의 법안이라도 개정을 해서 기본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시행령을 마련해서 우리 업역을 확대할 수 있는 차근차근한 답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한 번에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회원들이 다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시행된 제도를 우리가 개선·발전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회원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리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계·감리개선 왜 합니까? 돈을 받기 위함입니다. 공공적인 것,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돈을 받는 부분은 제가 임기 동안 하지 못했던 감리비예치제를 반드시 이루어내서 법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좌장 : 세 번째 공통질문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건축사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위기의 우리 건축사집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신지, 건축사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건축사 생존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세 번째 자리에 계신 조충기 후보자부터 강석후 후보자, 이창섭 후보자, 김영수 후보자, 정태복 후보자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충기 : 예, 우리 어렵지요. 우리 건축사들에 대한 비호는 법제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건축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설계도서는 법에 따라서 허가도면을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허가도 관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국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설계기

본부를 제공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건축사의 감리업무 또한 그렇습니다. 상주감리업무나 비상주감리업무의 영역이 모호해서 비상주 영역이 의외로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책임이 상당히 전가되는 이런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의 미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 보장, 건축사 생존에 관한 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히 우리에게 그칠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은 그것을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전 방위로 사용해서 대정부, 대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으로 해야 하고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사의 위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건축사로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처럼 협회가 스타 아키텍트 상을 주고 스타 아키텍트를 키우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과 생활하는 우리 건축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후 : 위기, 건축사의 미래, 어떻게 건축사집단을 이끌 것인가, 건축사 생존전략, 네 가지네요. 네 가지면 30초씩 이야기하면 끝나는 내용 같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헤이니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위기를 크게 외적위기와 내적위기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외적위기는 경기변동에 의한 위기와 구조적 위기로 다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위기는 인구감소라든가, 인구고령화, 트렌드, 이런 것 등이 속한다고 합니다. 외적위기 중에 경기변동에 의한, 경기가 나빠서 우리 건축사들이 힘든 것은 사실은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럴 경우 협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경기를 회원들이 어떻게 헤쳐 나갈까 하는 메뉴를 제작해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경기를 타개하는 방법, 견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구조적 위기에 대해서는 협회가 준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또 내적위기를 살펴보면, 설계비 덩핑, 승자독식에 의한 양극화,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위기가 말로 우리 협회가 나서서 적극 대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의 미래, 사실은 없습니다. 단언하건데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건축경기, 지금보다 프로테이지가 알아져야 합니다. 지금은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면 우리 건축사들 미래는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바꾸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협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 협회의 장래비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전체 이념적인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건축사들이 잃어버린 영역을 되찾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많이 거론되어 왔던 협동조합문제가 앞으로 우리 건축사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자독식주의가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사람들끼리, 힘든 사람들끼리 나가는 체제가 앞으로의 장래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합해가지고 공통주택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녹색분야가 엄청난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건물을 일괄 입찰 제작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협동조합체제가 향후 건축사의 미래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사가 재무장해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로운 공부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현재 5년간 60시간의 교육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의 설비법을 과감하게 우리 협회 건축사 재교육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우리가 신 영역을 개척하는 게 누가 거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협동조합과 교육, 이 두 가지를 우리 협회 장래비전으로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 우리 건축사들의 미래, 저는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 자에는 항상 기회가 온다,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건축서비스의 혁신이 중요한데, 이유는 높아진 수요자, 즉 이용자와 건축주, 공공 이런 부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대는 굉장히 큼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건축사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인 서비스의 업무 표준화를 만들어서 우리 건축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 범위의 세분화와 확대를 해서 우리 건축사들이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기능별 대가기준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합리적인 보수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해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데에서는 절대 우리 건축사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축사들이 이러한 대가를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누가 봐도 쥐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변하고 어떤 타 분야보다도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복 :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불확실한 시대에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생존도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6개 시·도건축사회가 동일한 제도 하에서 균형과 조화로서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축사의 생존전략은 무엇보다도 감리제도 개선 및 대가 현실화, 유지관리점검대상 확대 및 심의전형 가상방식 법제화를 통한 대가의 현실화 등 건축사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능력인 설계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공약에서도 제시했지만, 건축법인과 협동조합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모범적인 사무소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해서 육성, 확산시킴으로써 경쟁 완화와 더불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건축사에 대한 홍보 강화와 협동조합의 건축사 직능 맞춤형 개발로 조기시행을 하고, 비상캠프를 세종시에 설치해서 국회와 공동 조사·연구채널 구축 등 입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설계자 감리의 법제화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현실화 등 많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건축사는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합심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좌장 : 그럼 이상으로 후보자 합동 토론회 1부 행사를 마치고 약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2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후보자에게 질문할 사항에 있는 경우에 휴식시간 종료 전까지 질문서를 작성하시어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지금부터 협회 제31대 회장후보자 합동 토론회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상호간 질의응답과 역질의 응답 순서입니다. 후보자 상호간 질의는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 2인에게 1개 문항씩 각각 1분 이내에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상대 후보자에 대한 역질의는 한 후보자 당 다른 후보자 1인에게 1회에 한해 1분 이내에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으신 후

보자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2분 이내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는 후보자 상호간 비방이나 과격한 발언은 좀 자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시시오.

그럼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실 후보자가 계시면 순서에 상관없이 상대 후보자를 지명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자에게 궁금하거나 아니면 정책에 의문이나 반론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설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가능하면 전 후보자께서 한 분씩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복 : 앞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가볍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강석후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석후 후보님이 선거공보 하신 내용을 보면, '건축사 업역 침범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평소 저희가 느꼈던 강성 이미지가 상당히 배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신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호 3번 우리 이창섭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8월 31일, 건설사 설계겸업의 빚장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법 제9조인가를 보면 이미 벌써 '10만㎡, 건축사 20인'이라고 해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미 빚장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저지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지가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법을 원점에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원점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께서 저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이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좌장 : 먼저 강석후 후보자 답변하시고, 이창섭 후보님이 나중에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석후 :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강성입니까? 우리 업역을 뺏기지 않겠다는데, 이게 뭐 강성입니까? 어떤 회장이라도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회장들이 안 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방어만 했다면 우리 협회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왜 방어만 합니까? 공격도 해야지. 변호사협회에서 어느 날 입법발의 했습니다. 내용이 변호사들 업역 확보하려고, 앞으로 모든 관공서는 변호사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는 법을 발의했어요. 또 하나 발의한 건, 가관도 아닙니다. 앞으로 200명 이상 되는 기업체는 무조건 변호사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고 발의했어요.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모든 관공서는 건축사를 의무적으로 100명 이상씩 고용해야 한다, 되든 안 되든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100명이 안 되더라도, 1명이라도 건축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방어만 했습니다. 남이 와서 뺏어가는 거 뺏기만 했습니다. 왜 우리 업역을 뺏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건축사 자재선택권,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공서에서 건축사 의무 채용하게 해야 합니다. 또 건축학과 교수들이 건축사면허 있습니까? 의대 교수들 다 의사면허 있습니다.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건축과 교수들이 건축사면허 없습니다. 앞으로 건축과 교수들도 건축사면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창섭 : 정태복 후보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설계겸업 문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 아까 기초연설에 이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계겸업, 2009년에 정태복 후보께서도 입법발의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설계겸업 관계의 기본 성격이 -----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메이저그룹들이 계열회사에 자꾸 일을 몰아주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민며느리로 삼겠다는 겁니다. 회사 내에다가 부서를 뒤편하고 나머지는 하청을 주겠다, 그런 뜻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자꾸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이번에는 우리 협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유사단체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대처를 하고 같이 싸야 되는데, 상대방이 정치인들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 양반들이 주목하는 건 항상 표입니다. 그러니깐 양극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 단위로 일하는 사람들이 불과 2~3억원짜리 일을 뺏겠다는 것이거든요. 실상이 이렇습니다. 탐욕이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자꾸 확대돼서 만약 20인에서 5인까지 풀어주면 우리 협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서, 나중에 제가 입성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격해야 하니까, 만약 당신들이 계속 이와 같이 하면 후분양제도, 선분양 이렇게 공격을 하면 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장 : 질의를 받으신 강석후 후보자와 이창섭 후보자께서는 정태복 후보자에게 역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역질의를 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짧게 넘기겠습니다.

강석후 : 없습니다.

좌장 : 그럼 다음 후보자께서 상대방 2인 후보자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창섭 : 기호 5번 조충기 후보자에게 여쭙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 꼭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조 후보께서 서울회장에 재임하실 당시에 특검문제가 형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특검문제 관계자가 한 100여분 확대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을 탄다거나 확대되면 우리 건축사 전체에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밝혀져 보십시오. 국민들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조충기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충기 : 제주까지 와서 서울 문제를 하려니깐 전국 토론회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에 2,500명의 회원들이 있고 특검하시는 분들이 약 300분 계십니다. 가장 문제가 무엇 이냐면 우리 협회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잘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면허대여업자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뒷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업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국장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편적인 회원들이 정상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장 뒤로 돈을 보태줘서 그 일을 따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올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언론이 떠들어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회자되고 있는 분들은 면허업자, 대여업자거나 비회원이 대다수고, 지금 특검과 관련된 분들은 아무래도 대상이 되었겠죠. 그러나 지금 추측되는 바로는 열댓 명에 불과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스스로가 말을 자꾸 오인하게 되면 우리 건축사 집단의 문제로 비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점을 분명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 1년 동안 추진해오다가 잘 안 되어서 올해 인사이동을 통해 정리한 사건이고, 현재 있는 문제들은 아마 수사를 계속 받고 있어서 3월쯤에 정리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회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비리가 가로막고 비리가 업무를 빼앗는 일은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조충기 후보자께서 이창섭 후보자에게 역질의 하시겠습니까?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역질의 하시는 겁니다.

조충기 : 이걸 이창섭 후보자께서도 회원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

할 건 없습니다.

좌장 : 이창섭 후보자께서는 다른 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창섭 :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개인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확대되면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갑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충기 후보뿐만 아니고 현 회장님이신 김영수 회장님께서도 협회차원에서 빨리 축소 내지는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좌장 : 질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하신 겁니까?

이창섭 : 그 점에서 대해서 다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충기 : 협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협회는 회원의 공평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들이 나와서 비리를 운운하고 전 회원을 비리화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리를 통한 협회 수주, 비리를 통한 우리의 정당한 수주를 방해하는 것,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를 보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협회의 정당한 업무수주를 방해하는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 그걸 통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그렇게 처리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된 비리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지, 이것을 자꾸 얼버무리서 협회가 범죄집단으로 호도되는 일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다음 후보자님께서 상대방 질의를 계속 해주십시오.

조충기 : 김영수 후보자와 지금 질문을 주셨던 이창섭 후보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정태복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사 설계검업이 2008년에 있었죠. 그때가 최영집 회장님 시절 이었고, 김영수 후보자께서는 그때 서울회장을 하시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김영수 후보자께서는 설계·감리보다는 복원·감정에 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설계검업에 교두보를 발판한 그 역할이 있습니까?

김영수 : 아마 제가 설계는 조충기 후보자보다 배는 더 할 겁니다. 저는 사실 업이 다양합니다. 건축사 설계로만 못 먹고 삽니다. 벨

류엔지니어링, 대한민국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우뚝 서서 여러 건축사 형님들 다 자격 나눠드리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겸업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회장 할 때 조총기 후보자는 이사였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을 넣어서 조금은 빗장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아무도 그 회사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그 기준을 우리 협회는 고수할 겁니다.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히 막고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이창섭 후보자에게 질의하실 내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조총기 : 이창섭 후보자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리한테 뺏긴 업을 찾아오겠다, 저도 상당히 기대합니다. 찾아오는 방법이 무엇인지, 감리한테 뺏긴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 감리전문회사에 있어 뺏긴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어떻게 찾아올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개인 소규모 사무소들이 실적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진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진입장벽을 1차적으로 낮추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들이 서로 협동을 해서 한 다섯 명 정도 묶으면 실적이 300세대까지는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리실적이 없더라도 설계실적을 합하면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다섯 명 정도는 협동조합으로 묶이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다 안 되겠죠. 하지만 300세대, 500세대까지 진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그만 거에 너무 목매지 말고 큰 거, 감리전문회사에 뺏긴 공동주택 감리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입성하면 분명히 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좌장 : 지금은 조총기 후보자께서 김영수 후보자과 이창섭 후보자에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두 분께 역질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두 분 중에 조총기 후보님께서 역질의 하실분이 계시면 역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섭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마

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무슨 비리가 있다는 걸 문제 삼은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협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도 빨리 해결하고 빨리 덮어야 합니다. 그것이 협회의 존재이유입니다. 그것이 조그만 게 커지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협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강석후 후보자만 아직 상대적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강석후 : 이창섭 후보자에게 먼저 질문 드리고, 김영수 후보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창섭 후보자께서 우리 협회를 위해 고령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시고 회원들에게 봉사하시는 데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장이 되시면 잘 할 걸로 저도 믿습니다. 제 질문사항은 협회 발전계획 중에 협회 발전분야에 11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기타분야에는 47개의 과제가 있죠. 11개 과제 중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6개이고, 미 추진된 게 3개 있어요. 그리고 중단된 게 2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 2개의 과제가 왜 중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섭 :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가 뭐죠?

강석후 : 협회발전 기본계획은 알고 계시나요?

이창섭 : 대충압니다.

강석후 : 11개의 과제가 있고, 그 중에서 6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추진된 것들은 설계공사원, 방송사업, 건축문화의 전당, 들어보시긴 하셨죠? 그게 미 추진되고 있는 과제고요. 중단된 게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단된 2개는 왜 중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섭 : 중단된 2개가 뭐죠?

강석후 : 아, 모르십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모르시는 걸 모르고. 그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회원인증제가 중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전문가단체 통합입니다. 그 두 가지 과제는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창섭 : 전에 정치인 중에서 정동영 씨가 고령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론위원이 장 위원하고 고령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개토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신공격입니다.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원인증제 문제보다는 건축전문가단체 통합 문제를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건축전문가단체 통합 문제는 우격다짐으로 될 수 없어요. 이번에 설계·감리분리제도를 하면서 한국건축가협회에서 9개월 동안 사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몸집이 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진흥원을 제가 입성하면 만들겠습니다. 별 돈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건축센터, 우리 협회가 현재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 협의기구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녹색건축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협회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건축단체 통합 문제를 이런 순리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입니다.

좌장 : 그러면 김영수 후보자에게 질문해주시시오.

강석후 : 예 죄송합니다. 전 별로 생각 없이 한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후보자께서는 또 우리협회 수장이시고 2년 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나오신다니깐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한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하시면 더 잘 하실 걸로 저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전에 한번 질문했더니 딸딸 외운다고 하셔서 제가 딸딸 외운 거 질문하면 편하실 거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회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가 한 가지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예산 중에 회원대비 예산이 가장 적은 도시와 가장 많은 시도가 어딘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 예산이야 제가 맨날 다루고 있으니까 답이 잘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협회가 현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 예산안이 54억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84억957만원입니다. 합계137억5557만원입니다. 그렇게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도에서 가장 적은 예산을 집행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주도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와 충북이 비슷비슷합니다. 가장 많은 데는 서울건축사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6억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틀렸으면 제가 그 수치까지는 정확히 외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부 회장이 하는 일이 수십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건축사입니다. 머리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정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석후 : 지금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예산까지 합친 총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합쳐서 지역예산 총계가 얼마냐, 그리고 회원대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원대비 예산이 가장 많은 시·도, 어디 금액을 말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회원 수에 비해 예산이 가장 많은 시·도, 가장 적은 시·도를 말해달라는 겁니다.

김영수 : 지금 고려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려 하는 것은 통계가 있으면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충남이 회원대비 예산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좌장 : 강석후 후보자께서 이창섭, 김영수 후보자에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두 분께 역질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석후 후보자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이 어려워요. 우리협회에 지금 장학회가 있는데, 이게 발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장학회계에 대한 돈이 얼마인데 지금 되지 않는 건지, 그 연도에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강석후 : 질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정확하게 총계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는 72억6000만원 정도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합쳐서 22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수 :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셔야지.

강석후 : 2분 이내에 답변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총 예산이 얼마인지를 저는 회장은 알고 있어야 하고, 이 20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요. 회원 수 대비 예산이 가장 많은 곳, 적은 곳, 그거 간단합니다. 제주도가 회원대비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적은 데

는 경기도입니다. 이거 안 두드려 봐도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함정 질문한 것 같아서 장학회 말씀하시는데, 우리 협회 장학회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협회 장학회가 진행될 때 별도회계로 운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산을 다른 데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원래는 장학회를 운영하려면 10억이든 20억이든 예산을 확보하고 그 이자로 장학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때그때 돈을 걷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으로 계신 강성익 회장님 때 모든 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금을 출원해서 이자로 장학회를 운영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 얼마씩을 출원 받고 했는데, 예상대로 다 못 받았습시다.

좌장 : 마지막으로 김영수 후보자는 아직 상대방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김영수 : 강석후 후보자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후보는 되게 훌륭해요, 제가 보기에요. 서울건축사회 제 바로 후임자이고, 저는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이 분은 선거 끝나면 '나 절대 안 나간다'고 해요. 서울회장 할 때도 그랬고, 저랑 본협회 회장 경선해서 떨어질 때도 또 그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협회 회장을 할 수 있는 진짜 유능한 후보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십시오.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강석후 : 질문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사실이 그랬어요. 제가 서울회장 나왔을 때도 선택을 못 받았고, 세 분 나왔는데 꼴찌를 했습니다. 김영수 후보자께서 제 더블을 받았습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표가 안 나와서 억울했고, 실제로 제가 다음에는 안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협회 봉사라는 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저도 먹고 사는 데 치중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네가 한번 회장하는 거 보고 싶다, 정말 잘할 것 같다, 한번 나가라.' 저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 불러놓고 모든 선배님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거역할 수 없는 선배님들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협회 일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냐, 한 번 더 나가라.' 용기 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시다. 회원의 선택을 받았습시다. 만약 제가 안 나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회원의 선택을 못 받으면 그건 제욕심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장 : 김영수 후보자께서는 다른 후보자분들께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강석후 후보자께서는 역질의 하실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강석후 : 예, 안 하겠습니다.

좌장 : 다섯 분의 후보자 모두가 상대질의를 하셨고, 그에 따른 역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후보자 상호간 질의응답 및 역질의 응답순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회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방청석 질의응답순서입니다. 회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모두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질문하신 내용이 오늘 토론회에서 이미 답변된 내용이거나 다른 권역 후보자 토론회 공통질문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나, 특정회원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질문사항을 선별해서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가 건축사사무소의 이용한 회원께서 후보자 전원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발주부문에 건축사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1분씩, 다섯 분이 다하셔도 좋고요, 그 중에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지금 공공발주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이 들어갈 때 아마 건축사가 참여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방법이 없느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질문을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선택적으로 후보자들께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김용식건축사사무소에 김용식 회원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아까 후보자들께서 기초연설 때 출마의 변을 다 말씀하셨는데, 김용식 회원께서는 한 번 더 간단하게 회장에 출마한 아주 구

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아직 기초연설 때 다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줬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조총기 후보자에게 국한된 질문입니다. 들으셨다가 나중에 한 번에 답변해주십시오. 건축사사무소 창성의 김창성 회원입니다. 질문내용은 '서울에서 공영감리가 거의 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더 발전시켜야 할 일들을 잘 못해서 해체 일보 직전이라면 전체 회원이 바라는 설계·감리제도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입니다. 이걸 한번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다우건축사사무소의 김경복 회원이 질문 하셨습니다. 강석후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하신 겁니다. 질문내용입니다. '강석후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협회장 입후보 시 낙선하면서 차기에 재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를 어기고 이번에 재출마하게 된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듣고 싶습니다.'입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변을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개별질문을 받으신 분은 답해주시고요, 전체 후보자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자든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계신 김영수 후보자께서 네 가지 질문 중에 개별질문을 빼고 두 가지 중 선택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김영수 : 제가 협회장으로 당선되어 2년 동안 협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제가 왜 연임을 해야 하느냐, 우리 협회는 50년 동안 연임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협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회장은 2년을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협회의 방대한 업무와 외부관계, 대외관계가 널려져 있습니다. 인적관계를 형성해야만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이 1년 동안에 공부하고 정리해도 모자랍니다. 지금 저도 협회 내용을 일부 모르거나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2년 동안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협회 회장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가 한 사람이 그러한 변화를 유도해서 50년 역사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해서 회장이 연임도 할 수 있다, 연임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임을 하고자 나온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변화에 대한 심지를 바르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복 :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아직 한 번도 회장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방금 우리 김영수 후보자의 말씀을 듣다보

면, 아마추어 골퍼들이 잘못 치면 널광 주지 않습니까? 낙장불입이라는 내용 아시죠? 프로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축구에서 페널티킥을 한 번 더 차라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지 못한, 저를 비롯한 네 명의 후보자들이 듣기에는 좀 섭섭한 말씀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것은 경험도 경험이지만 상당한 특혜였다고 생각하면 회원들을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재고해주시면 어떨지 부탁드립니다.

아까 출마의 변을 5분간 말씀드렸습시다만, 저는 여타 네 분의 후보와 달리 지역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285km 정도 떨어져있고, 목포에서 142km가 제주도입니다. 제가 부산회장을 두 번하고 본부 이사를 하면서, 그리고 협회활동을 10여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협회가 지금까지 서울 위주의, 중앙 위주의 협회 회장을 하다보니깐 정말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잘 모르시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170여명의 회원들이 계십니다만 지금 협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공약을 내걸고 제가 지역출신으로서 회장이 된다면 반드시 공정한 협회, 회원을 위한 협회, 정말 회원이 설계를 할 수 있고, 설계하는 건축사의 본질인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회장이 되기 위해 나왔습니다.

좌장 : 조총기 후보자께서는 개별질문에 먼저 답변해주시고, 공통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조총기 : 제주도까지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저는 생각이 달리됩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공영감리제도가 실패라고 단언하는데, 질문자의 근거가 궁금해요. 왜 실패라고 얘기하는지. 그렇게 막연하게 실패라 단정 지으면 어느 회장이든지 간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계가 됐든 감리가 됐든, 시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강석후 전 서울회장께서 감리공영제도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셨죠. 300명이라는 감리자를 데리고 공공감리를 시작했는데, 조금 역작용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감리자는 특검을 할 수 없고 또 그 중에 선도위원이 있는데 감리자특검자는 선도위원을 할 수 없다보니까, 어떤 고리가 걸리는가 하면 특검자, 선도위원자, 감리자, 감리를 하는 일반회원,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이 되어서 회원 간의 알력이 상당히 셧습니다.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설계·감리가 구분되어서 초기에는 회원들이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감리자들이 와서 완장 차듯이 현장을 압박하고 또 현장에 콘크리트 레미콘을 치는데 '기다려라, 슬럼프를 내놓아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

죠. 그러다보니까 설계자들이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영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심도위원이 '이것을 분리 안 하면 협박하겠다'고 그래서 일반 보편적인 회원들이 동참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전 회원이 참여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전 회원이 설계·감리공영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이것이 서로가 감리의 서비스업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변화되었어요.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마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설계·감리의 공영화가 이루어져서 설계자가 현장에서 감리로부터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장 : 다음은 강석후 후보자 개별질문부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후 : 질문하신 분이 다우 건축사사무소 어느 분이신가요? 제주도에서 계신 분인가요? 제가 성함을 못 적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다시는 안 나오겠다고 이야기했다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명입니다. 한 번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서울에 나올 때는 1차에서 연설문에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안 나오겠습니다. 이번이 협회의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연설문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공천 얘기했을 때 연설문으로 얘기했던 것이어서,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2012년 이후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니깐 제가 좀 '안 됐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아까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협회생활을 굉장히 오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떡하면 협회에서 발을 뺄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협회에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출발했던 협회생활이 하다보니까 답답하고, 이걸 내가 해야 되겠고, 이것까지는 마쳐야 겠고, 이 정도까지는 회원으로서 봉사한다고 하면 될 것 같고, 쪽 하다보니까 발을 못 뺐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위에 실질적으로 동지들이 생겼습니다. 동지들과 울분을 토한 적도 많습니다. 날을 세운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가는 게 낫다'며 저를 이끌었던 선배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협회가 저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한건축사협회가 저의 종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건축사협회 잘되는 거 한번 보고 내가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다른 뜻 없고 다른 사심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에 나오다보니까 이런 얘기 듣기도 하는데요, 저 앞으로도 마

찬가지입니다.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곳입니다. 무슨 사심이 있습니까? 봉사 한번 제대로 해서 제가 회장 맡을 때쯤 되면 모든 회원들이 '강석후 기대 안 했는데 정말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정말 잘한다, 이런 회장 우리 시대에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좌장 : 마지막으로 이창섭 후보자께서 답변해주십시오. 그런데 네 가지 질문 중에 아직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창섭 후보자 답변을 들어보고 그 한 가지에 대한 답변하실 분 찾겠습니다.

이창섭 : 그 부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하는 데 건축사가 실무위원으로 참석을 못하고 있다, 그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축심의위원 POOL제도와 어느 정도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가 과거에 도시계획분야를 같이 했는데 뺏겼습니다. 지구단위도 뺏기고 종종 뺏겼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드시 찾아와야 합니다. 건축사들께서 가능한 한 지구단위계획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만 우리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김영수 후보자께서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후보가 협회에 들어가면 업무가 중단된다는 것인지,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섬뜩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용어의 선택에 지나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중단 없는 전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다른 후보가 협회에 들어가면 협회업무가 마비가 됩니까? 조금 지나친 의사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좌장 : 마지막으로 공통질의가 두 개 남아있는데, 두 질의 중에 혹시 답변하시고자 하는 분 있으시면 두 분만 받겠습니다.

조총기 : 아까 시간이 짧아서 못 했습니다만, 왜 출마했냐면 이것입니다. 제가 IMF 때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찾다가 협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법제도가 갖고 있는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 협회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협회를 잘은 몰라도 건축사들이 법제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설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건축사업을 잘 할 수 있고, 노후에도 안정될 수 있는 샘플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협회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때 법을 시작했고 법을 찾아가면서 법제도만이 건축사의 업을 안정되게 하고 있고 생존을 지킬 수 있다는 일념을 가지고 20년 되어갑니다. 이것을 실현해보고자 합니다. 고

맙습니다.

정태복 : 제가 마이크를 든 것은 아까 이용한 제주건축사 회원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회장을 할 당시에, 현재 제주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교육청 발주 감리부분을 교육감을 설득하고 법을 바꾸어서 지금 부산은 교육청 발주 감리에 건축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이제 문을 열어서 다른 타지에서도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업무 참여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산에서는 지금 건축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건축사 업무범위나 업역내용에 있어서 다소 생소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게 열어놔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장 : 공통질의에 대해 한 분 더 의견 들겠습니다.

김영수 : 건축사들이 어떤 업역이 생기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업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건축사들은 '설계 아니면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들은 인식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은 손을 놓고 안 해도 되고, '도시계획가, 이런 사람들이 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다 건축사도 하지요. 일부분은. 그러나 건축사들이 '난 설계만 하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 한다'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전문가적 소양을 키워서 우리의 능력을 배양하고 모든 부분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장 : 이상으로 방청석 질의응답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순서가 있습니다.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 당 3분 이내로 해주시고, 발언순서는 오늘 기초연설을 했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이창섭 후보자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창섭 : 기초연설 때 우리 협회조직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 2년 일이 아닌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그렇게 경직된 게 바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회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로 아닌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입성하면 반드시 우리 협회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반듯한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협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은 하나하나 디테일한 면이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소규모 사무실이 한 사람 한 사람 미약합니다. 이대로 개척할 수 없다, 협동조합문제를 활성화해서 뜻 맞는 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승자독식이 아닌 서로 힘을 합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역을 되찾기 위해서, 또 새로운 영역을 얻기 위해서는 거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배양하고 건축사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좀 더 철저히 받아야겠다, 다시 한 번 뒤늦게 나이 들어서도 교육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주셔서 협회가 반듯한 반석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후 :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기호 1번 강석후입니다. 제가 서울건축사협회와 본협회의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TF팀에 참여하면서 회원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강력한 대외정책을 펴라는 준엄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알아서는 볼 수 없었고 침묵하면서 방관자가 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지난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저의 부덕의 소치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2년 동안 반성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축사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 많은 생각을 다듬어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과 협회에서의 여정, 대한건축사협회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협회가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된 이후의 향방, 건축사들의 고난과 위기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궁극의 해답을 회원들이 협회에 대해 요구하는 목소리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회원 여러분들의 무서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연은 바람이 셀수록 높이 오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뚫을 수 없다면 어찌 높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상황을 이 거센 바람을 난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높이 오를 수 있는 바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많이 넘어진 사람일수록 빨리 배운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여건에 좌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아껴주시고 걱정해주신 선배 건축사 여러분, '네가 우

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진심어린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오랜 시간 저와 함께했던 동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이제는 협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꿈을 접고 조용히 떠나겠다던 동지 여러분, 삶이 고달파 협회에 봉사하는 것이 사치 같다며 떠나시던 동지 여러분, 부탁하건데 아니 애원하건데 돌아오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망망대해 한가운데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후배들이 안보이십니까?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체하시는 겁니까? 만약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하늘의 버림을 받아 지금처럼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된다면 대한건축사협회는 없는 겁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 건축사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저 혼자 꿈꾸는 협회는 언제나 혼자만의 꿈입니다. 하지만 같이 꿈을 꾸고, 모두 꿈을 꾸다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충기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건축은 건설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설계시장이 4조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건설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업역에 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수는 많아졌지만 건축사 개인에게 할당된 허가 건수는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얘기하는 독식을 누가 했다 이거죠. 우리가 설계총량제 도입 등을 해서 회원 개개인이 혜택을 받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사를 하고 있는 분이 1만2000명인데, 경쟁력이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서 12,000대의 경쟁률을 갖는 구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화, 활성화해서 경쟁구도를 거꾸로 100대1, 12대1, 압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막연하게 20년 전 설계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하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축주가 필요로 하는 단계별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포괄적 대가에서 단계별·행위별 대가를 받게 되면 현재 설계비의 3배 내지 5배, 7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가야되고 그래야 안정 속에서 건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이 사실상 건기법의 저축을 받는 이유는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하는 용역에 기술사, 기사가 해야 하는 영역들이 건축법 제 25조 9항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사의 인력들이 다 기술사, 감리회사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축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건설 중심의, CM 중심의 지배구조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 우리는 건축사지 기술사가 아닙니다.

협회는 협회다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협회가 국토부의 정책 부서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따라서 당당히 국토부와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그 발걸음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 우리는 건축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태복 : 170여명의 제주특별자치도 회원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0년 역사에 아마 처음으로 직선제가 시행됩니다. 내년 1월 20일 21일에 모바일로 투표가 된다는 걸 회원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협회의 현실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등록회원 수 4,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회원이 2,000명 가까이 됩니다. 6,300여명 전 회원 중에 회비를 내는 회원이 60%가 안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그 출신의 서울회장님들이 우리 협회를 독점하다시피 이끌고 계십니다. 어떻게 16개 시·도가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지역단일후보인 저에게 맡겨봐 주십시오. 바뀔놓겠습니다.

건축사 직업의 본질은 창조, 창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직업의 본질을 우리 건축사가 알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무지가 물론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무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덜 아는 것이 더 창조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다 보니 잘 모릅니다. 솔직히 부족합니다마는 40년 가까이 설계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건축사의 직업이 뭔지,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설계를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존재목표가 뭔지를 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본질에 맞추면 성공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공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지만 강한 협회,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으로 생존권 확보에 주력하는 회원 행복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변화와 소통해서 협회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정태복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 : 존경하는 1만여 건축사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회원님들을 보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31대 회장선거는 지난 50년 동안 시행해오던 대의원제에서 전 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뀐 첫 해입니다. 처음 시행하면서 다소 보완되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협회를 이끌어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협회는 반세기 동안 회장의 임기가 단임으로 마치는 것일까, 선거에 임박하여서 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떤 제도나 시스템보다 잘못된 관행이나 내용을 발견하고 전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너무 짧고 회장이 계획한 과제들을 나열하는데 급급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외부적으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이 있고 주변사람에게도 우리 협회의 내용을 인정받으려면 검증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2년의 시간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거의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기에 50년의 관행을 깨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2년의 경험과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시작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추진 중인 10여 가지의 법제도 개선과 정책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어 회원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미래가 더 나아지는 변화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사입니다. 저도 편히 쉬고 즐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연임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장

을 해본 사람만이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제도나 관습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의 연임에 도전하려면 업무를 더욱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원이 필요로 하는, 깨끗하고 열정적으로 주변에서 인정하는 능력을 갖춘 회장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좌장 : 다섯 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멀리 제주도까지 오셔서 힘든 토론에 임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셔서 제주도건축사회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모든 선거에 있어서 항상 출발지가 되는데, 경선과정에서 항상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분이 결과를 꼭 가져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제주도에 출발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제도화되고 실현되어서 건축과 건축사, 협회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들과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들, 모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협회 제31대 회장선거 제주권역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ㄹ



(좌측부터) 김영수, 정태복, 조충기, 강석후, 이창섭 후보

| 글. 김재환 Kim, Jae-hwan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

Transformation of common use space in
a collective building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흥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옥천군, 보령시, 대덕구 등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형사·가사·행정·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는 집합건물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그중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정의하면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등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민법상의 공유물 변경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다만,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하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의2호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들므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등으로 구분소유자

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은 초래하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그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은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주택법은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무분별한 주택재건축 등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특별히 허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개정 주택법 규정들이 준용된다거나 개정 주택법 규정들에 비추어 집합건물법의 '공용부분의 변경'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재건축결의에 의한 재건축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절차를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에 대하여는, 재건축절차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참조).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집합건물법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별도로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부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을 따로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참조). ▮

| 글. 전영백_ Chun, Young-paik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미술사학과) 정교수

‘건축을 위한 미술의 제안’ <종합편>: 6회 연재를 마무리하며

장소의 기억, 기억의 공간

Memory of a place, A place for memory

장소는 우리의 기억과 연결돼 있다. 그 곳에서 행복한 추억을 확인하기도 하고, 아련한 향수를 느끼기도 한다. 때로 억압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는 고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최근 상영되는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의 영화 <인터스텔라 Interstellar>는 많은 영감을 주지만, 그 중 공간에 대한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영화에서 어린 딸 머피의 방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매개체가 되는 곳이다. 이 방은 아빠가 인류 생존의 희망이 걸린 우주탐사를 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곳이자, 3차원을 초월한 시, 공간의 소용돌이를 경험한 ‘지연된 미래’의 아빠가 어린 딸과 소통을 절박하게 시도하는 곳이다. 영화에서 이 방은 전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주인공과 관객에게 수차례 회고 되고 기억의 핵심에 자리 잡는다. 머피는 수년이 지나서야 어린 시절 아빠가 자신을 버렸던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시 돌아온 머피는 그 공간에서 잃어버린 아빠와 해후하고, 이 장소는 과거와 현재, 지구와 우주 그리고 삶과 죽음의 매개가 된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그리고 영국 리즈 대학교(Univ. of Leeds) 미술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2002년 이래 영국(런던) 학술지 'Journal of Visual Culture'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해외출판(Blackwell, Routledge 등)에 주력해 왔다. 『세잔의 사과』(문광부선정 우수학술도서)와 『22명의 예술가, 시대와 소통하다: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자화상』 등 10권의 저서와 17편의 논문을 출판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HoMA 관장, 동아시아 예술문화연구소 소장, 미술사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더 무거운 경우로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Auschwitz)를 들 수 있다. 대략 4백만 명이 희생된 그 곳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의 아픔이 생생하게 서려있다. 아우슈비츠는 직접 가봐야 안다. 굶주림과 노역에 시달린 유대인들을 몰아넣었던 장소, 유대인들의 머리카락으로 한올 한올 짜여진 장교복이 전시됐던 곳, 벌거벗은 부녀자들을 공동으로 씻기고 죽음의 가스를 살포한 가스실은 잔혹함을 온 몸으로 느끼게 한다. 이렇듯 상흔(trauma)을 지닌 장소로 우리는 이제 진도의 팽목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은 그 고통의 장소로 다시 가는 것이 끔찍할 것이다. 그러한 공간은 아픔을 불러오고 상실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억이 배어있는 장소를 재현해 내는 것이 가능할까. 주체의 심리가 밀착된 공간의 기억은 관념이 아닌 신체에 각인된 것이기에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라고 한 말을 이해한다.¹⁾ 언어는 장소와 직결된 기억을 표현하는 데 적절치 않다. 언표의 상징성으로 인해 거리감을 확보한 화자의 부적절성, 상징계(the symbolic)가 지닌 이분법적 폭력성, 더 나아가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함으로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 등 그 이유는 많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극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라우마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다.

시각예술이 언어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시각 작업은 장소와 연관된 고통이나 행복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그 방식이 훨씬 근본적이고, ‘관계적’ 성격을 갖는다. 주체의 체험과 그 기억을 머금은 공간 미술, 특히 건축적 설치작업은 언어가 의미화할 수 없는 기억의 표상에 관여한다. 왜냐하면, 미술의 시각언어가 속하는 기호계(the semiotic)는 언어 이전의(pre-linguistic) 영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 기억의 재연: 44년 후에 복제된 전시
《태도가 형식이 될 때 When Attitudes become form》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기억이 재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특정 공간에서 벌어진 과거의 어떤 행사, 이를 테면 작품 전시를 보고 그 공간에서 가졌던 기억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가이다. 즉, 과거의 전시를 오늘 내 앞의 공간에 똑같이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전시의 복제를 통해 공간에 밀착된 기억을 불러올 수 있다면? 이러한 상상을 실현시킨 것이 작년(2013년) 베니스 중심부에 마련된 한 전시였는데,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보다 오히려 세계적 주목을 끌 정도로 이슈가 됐다. 그것은 1969년 스위스 베른에서 열렸던 전시가 2013년 베니스의 프라다 재단(Fondazione Prada)의 바로크 건물에 다시금 복제된 것이다(도 1). 출품된 작품 뿐 아니라 그 위치와 공간을 거의 똑같이 재연한 전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44년 전 베른의 물리적 공간이, 그리고 그 공간의 기억이 그대로 관람자의 눈앞에 반복된 것이다. 이는 ‘최초의 개념미술 전시’라 기념되는 헤럴드 제만(Harald Szeemann) 기획의 《태도가 형식이 될 때 When Attitudes become form》였다(도 2).



도1) 《태도가 형식이 될 때 When Attitudes become Form》, 2013, 프라다 재단, 베니스(Prada Foundation, Ven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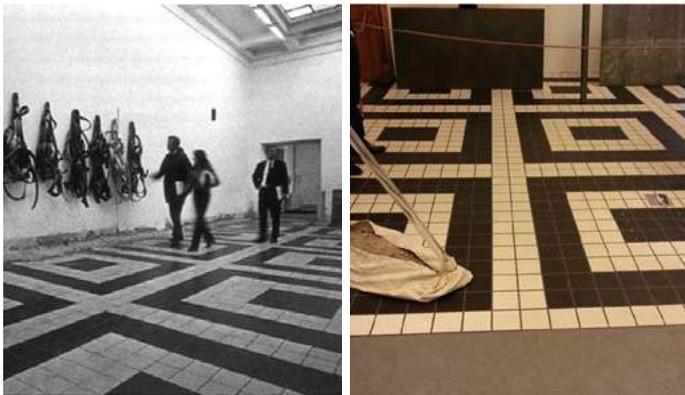
도2)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전시전경, 1969, 쿤스트할레, 베른(Kunsthalle, Bern)



도3)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전시전경, 2013, 카코너 델라 레지나, 베니스(Ca' Corner della Regina, Venice)

1) Theodore W. Adorno, "An Essay on Cultural Criticism and Society," in Prisms (Massachusetts: MIT press, 1982), p. 34.

이전까지 우리들은 전시공간에서 느끼는 관객의 체험적 공감은 그 전시에 고유하고, 특정 장소의 기억에 밀착된 것이기에 반복될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 1969년 베른 전시를 본 관람자는 베니스에 복제된 《태도가 형식이 될 때》전을 보면서 충격과 감격을 동시에 느꼈다고 말했다. 44년 동안의 격세지감(隔世之感)이란! 프라다 재단의 건물, 카코너 델라 레지나(Ca'Corner della Regina)(도 3)에서 관객은 눈을 의심할 정도로, 44년 전과 같은 작품들뿐 아니라 그것이 놓였던 전시공간을 동일하게 체험한 것이다. 전시된 작품들이 그대로 설치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시장 바닥을 포함하여 전시 공간을 동일하게 재연했다는 점은 새로운 충격임이 확실했다(도 4).²⁾



도4 《태도가 형식이 될 때》 베른 전시(1969, 왼쪽사진)와 베니스 전시(2013, 오른쪽 사진)의 바닥 사진

60년대 말, 개념미술이 처음 부상했던 시기, 실제로 벽을 파서 만든 작업(도 5)이나, 밧줄과 돌, 그리고 펠트 등의 자연 오브제를 그대로 설치해 둔 작업(도 6)을 보며 받은 충격은 포스트모던 미술의 표현언어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베니스의 충격은 기억에 관한 것이다. 공간의 기억. 공간에서 얻은 기억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충격 말이다. 마치 <인테스텔라>의 머피가 성장한 후 다시 찾아간 자신의 방에서 과거와 똑같이 책장과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보며 시간의 중첩을 느끼듯이.

이렇듯, 베른에서 열렸던 제만의 전시를 2013년 베니스에서 그대로 재연시킨 기획자 게르마노 첼란트(Germano Celant)는 베른에서의 미적 체험을 고증적 사진자료와 면밀한 아카이브 조사에



도5) 로렌스 와이너(Lawrence Weiner), <벽으로부터의 벽판 Wallboard From A Wall>, 1968, 카코너 델라 레지나 전시장 입구에 전시된 모습(2013)



도6) 알리지에도 보에티(Alighiero Boetti), <투린에서 일광욕하는 나 Me Sunbathing in Turin>, 1969, 베른 전시장에 전시된 모습(1969)

기반, 이를 그대로 다시 실현하려 했다. 공간 재연 및 재구축의 작업을 위해 사진작가 토마스 데만트(Thomas Demand)와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와 협력했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데만트와 쿨하스는 공간의 재구축을 위해 카코너 델라 레지나의 대리석 건물에 접붙여진 나무 판자들의 이음새를 숨기지 않고 그 접합부분을 나이브하게 그대로 드러냈다(도 7).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레디메이드 <자전거 바퀴 Bicycle Wheel>(1913)의 자전거 바퀴와 나무의자의 낫선 조합을 염두에 두고 '같은 효과'를 내고자 한 것이다(도 8). 또한 전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쿤스트할레의 마루와 카코너 델라 레지나의 천장이

2) 필자는 이 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돌이켜, 44년 전 베른에서 개최된 제만의 《태도가 형식이 될 때》는 장소 특정적 작업들을 한 데 모은 전시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대체로 장소 및 공간의 맥락과 함께 전시되는 것이 대세가 되는데 이러한 현상의 뿌리가 된 전시가 바로 이 전시였다. 이 전시는 작품이 독자적으로 갖는 오브제성보다 그것이 놓이는 공간과의 관계성이 문제란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 60년대 말, 포스트모던의 서두를 이끌며 개념미술, 아르테 포베라, 미니멀리즘의 작품을 특정 장소에서 펼쳐보였다. 그 전시에서 관객은 97점의 다양한 작업들, 예컨대 로렌스 와이너(Lawrence Weiner)의 벽을 판 작업 <벽으로부터의 벽판 Wallboard from a Wall>(1968) 등, 장소와 밀착된 작업을 보며 그 공간에만 특정한 미적 체험을 하였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가진 비상업적이고, 반자본주의적 성향에 열광한 이들은 그러한 고유한 체험을 다시 못 볼 것이라 여기며 뭇내 아쉬워했다. 작업들은 반복이 불가능한 성향으로 말미암아 아이빙가르드성을 보장받은 셈이었다.” (전영백, 「여행하는 작가 주체와 장소성: 경계넘기 작업의 한국작가들을 위한 이론적 모색」, 『미술사학보』 제 41집(2013년 12월), pp. 166-167 참조)



도7) <태도가 형식이 될 때>, 2013, 베니스 전시장의 가벽 부분



도8)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자전거 바퀴 Bicycle Wheel>, 1913

만나 이뤄진 것이었으니, 베른과 베니스가 전시를 통해 연결된 셈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선적이던 기억의 층이 이중적으로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후자는 전자와의 차이를 자연스레 만들어낸 점이었다. 한 장소의 '실제 공간'에서 체험하는 전시 관람은 또 다른 장소의 '기억 공간'을 불러온다. 말하자면, 주체의 인식 지각(cognitive perception)에서 두 다른 장소가 구조적으로 연계된 것이다.³⁾

돌이켜 본 '현대작가 6인의 건축적 설치 작업'

이제까지 논의한 맥락에서 최근 현대미술에서 건축적 설치 작업이 왜 대세인가를 어렵פות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미술계의 핵심어(key words)로, 주체의 기억, 신체적 감각, 언어 이

전의 표현, 그리고 공간적 체험, 그리고 건축과 도시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지면에 '건축을 위한 미술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6명의 현대 작가들의 작업을 각각의 주제와 함께 소개하였다. 리차드 세라를 시작으로, 고든 마타 클락, 제임스 터렐, 아니쉬 카푸어, 도리스 살세도, 서도호 등이었는데, 이 중 고든 마타 클락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존하는 작가들이다. 오늘날의 현대 미술을 이끄는 이들의 공통점이 건축적 설치를 위주로 하는 작가들이란 점을 강조했다. 6가지 서로 다른 작업 방식을 통해 건축과 미술의 밀접한 관계를 보이게 하고, 양자의 오래된 밀월 관계가 오늘에 와서 가장 큰 시의성을 가진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했다.

지난 연재는 그런 의미에서 6명의 건축적 설치 작가들의 작업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체적 작업의 내용뿐 아니라 전반적인 미적 특징과 의미, 문화적 맥락, 그리고 오늘날 제시하는 작업의 화두 등을 탐색한 시도였다. 작업들이 갖는 개별적 차이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이 작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건축물과 직결되며 또 도시공간으로 확장돼 간다는 점이었다. 그러다보니 관람자는 건축적 설치를 몸으로 느끼고 공감각적으로 체험하며 침잠하게 된다. 작품 주위를 돌거나, 심지어 작품으로 걸어들어가면서 작품을 공간적으로 대면하며 건축적 체험을 갖는 것이다. 이 지면 '공간'에서 6회의 요지를 간략히 요약해 보며 기억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베른의 전시를 베니스에서 환기했듯이.

오늘날 현대미술에서는 설치가 대세로 되면서 전방위 작업들이 건축적 구성과 공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미술사에서 그러한 시도의 선구자를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 1939-)로 보고 1회를 그의 건축적 설치작업으로 다뤘다. 돌이켜보아, 건축에 조각이 개입하는 양상은 2차 세계대전 이래 더욱 두드러졌다. 현대의 포스트모던 미술 흐름에 뼈대를 이루는 미니멀리즘, 포스트미니멀리즘, 프로세스 아트, 대지 미술, 개념 미술, 퍼포먼스 아트, 제도 비판, 설치 미술, 그리고 장소특정적 미술은 대부분 공간과 밀접하게, 또 건축과 연계되어 진행돼 왔다. 이러한 미술사의 흐름에서 건축의 요소를 거의 처음 미술계에 들여온 세라의 작업을 처음으로 살피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겼다.

공간에 개입하는 세라의 작업은 도시의 일상공간에 대담하게 설치되며 공공미술의 쟁점을 불러 일으켰다. 1981년, 맨하튼 연방 플라자의 분주한 공간에 설치된 그의 대규모 작품 <기울어진 호

3) 전영백, 위의 논문, pp. 167-168 참조.

Tilted Arc >(도 9)는 미술사에 남는 “중요한” 작업임을 강조하였다. 글에서는 작품에 대한 비난과 그에 따른 법정 소송으로 철거된 이 작품의 가치를 논했다. 작품이 없어도 일상의 도시공간에 가져온 변화,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사회적 논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였다. 개념 미술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라의 경우를 통해, 포스트모던 미학이 단순히 아름다운 조형물보다, 우리의 공간을 지각하게 하고 생활공간의 구조를 체험하게 하는 작업을 더 높이 사는 이유를 살펴본 셈이다. 아니 세라의 작업은 그러한 미학을 조성하는 데 첫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현대미술의 이슈에 일반의 주목을 집중시킨 화두는 ‘장소 특정성(site specificity)’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작품을 그 설치된 장소에서 제거하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장소 특정성은 현대미술과 건축이 만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80년대에 부각된 이 개념으로 인해 미술과 건축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법정의 결정으로 <기울어진 호>가 1989년 연방 플라자에서 철수되었지만, 세라의 작업이 던져준 화두, 즉 미술작품과 장소의 특정한 관계는 오늘날까지 유효한 것이다. 첼시의 전시장에서 접한 그의 최근 작업 <7개의 판, 6개의 각도 7 Plates, 6 Angles>(도 10)은 세라의 견재함을 실감케 했다.



도9) 리차드 세라, <기울어진 호 Tilted Arc>, 1981, 뉴욕(New York City, destroyed)



도10) 리차드 세라, <7개의 판, 6개의 각도 7 Plates, 6 Angles>, 2013, 가고시안 갤러리, 뉴욕(Gagosian Gallery,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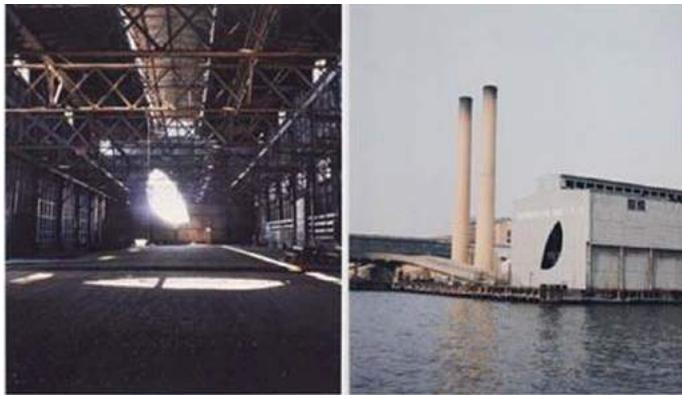
2회의 글에서는 건축 영역에서 ‘자르다’라는 실행을 통해 파격적 시각언어를 구현했던 고든 마타 클락(Gordon Matta-Clark: 1943~1978)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에 더 이상 쓰지 않는 실제 건물을 파격적으로 자르고 과감하게 구멍 뚫은 연작들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건물 자르기(building cuts)’는 건물의 마루, 벽, 그리고 천장을 뚫어 일종의 ‘조각적 환경’을 만들었다 할 수 있다(도 11).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짓지 않기(un-building)’라는 반(反)건축, 즉 건축의 역발상에 다름 아니다. 그의 위력은 이러한 ‘위험한’ 개념을 구체적인 생활공간에서 실현시켰다는 점에 있다. 마타 클락의 ‘파괴의 미학’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 배어있는 관습적인 공간 인식을 깨닫고 건축과 우리자신 사이의 근본 관계를 환기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다. 물리적, 신체적일 뿐 아니라 지극히 심리적이고, 사회적이며 또 정신적인 것임을 실감해 보았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서의 건축, 즉 거주자가 그 공간에 부여한 시간의 축적과 그에 따른 기억과 심리적 투사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했다. 그런데 그의 작업은 건물 내부를 절단, 내부 구조를 파격적으로 드러내는 등, 파괴와 해체, 그리고 예기치 못한 구조 등,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편리보다는 불편, 친숙함보다는 혼란스러움, 그리고 아름다움보단 기이함이다. 보는 사람의 고정된 시각을 벗어나게 하고 또 생활공간의 일상을 낮설게 하면서 거리를 두며 다시 보게 한다. 공간에 대한 혼란스런 감각을 제시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사물의 구조를 인지하는 지각 능력에 의문을 던지는 작가의 의도를 강조하였다(도 12).

마타 클락의 파격적 건축 설치의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관습을 벗어나야 하는 필요성을 실감케 한다. 창의를 느닷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없애고 깨야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작업이다. 그리고 일상을 새롭게 다시 보라는 메시지를 준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움이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기도.



도11) 고든 마타 클락, <쪼개기 Splitting>, 1974, 잉글우드 험프리 가 322번지, 뉴저지(322 Humphrey Street, Englewood, New Jersey)



도12) 고든 마타 클락, <하루의 끝 Day's End>(부두 52 Pier 52), 1975, 뉴욕(New York City)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1943~)을 다룬 3회 연재에서는 현대사회에 절실한 사색과 명상의 미적 체험을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구현한 작업을 거대한 규모로 보여주었다. 터렐의 작업에서는 빛과 건축적 공간이 중요하다. 고도로 절제된 미니멀한 건축 공간에서 우리는 정화된 빛을 대면한다(도 13). 동시에 우리 자신이 가진 근본적 열망과 두려움을 마주한다. 그리고 여기에 '경이(marvel)'가 뒤따른다. 경이로 귀착하게 한 빛이 유도하는 것은 종교적 열망이다.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물질문명에서도 고도의 정신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신으로 발달된 과학 기제는 빛의 표현에 적극 활용되어, 그 신비로운 공간 속 빛을 체험한 관람자에게 영적 교감을 갖게 했다. 산업사회의 종말과 맞닿은 자연의 파괴와 정신성의 피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주목받은 후, 1980년대에 국제적으로 부상한 터렐은 일관되게 빛과 공간에 관해 탐색했고 특히 관람자의 지

각을 중요시해왔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그의 작업은 초기 투사작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건축물과 연관하여 대담한 규모로 발전, 최근에는 사막의 분화구 전체를 설치작업으로 만드는 대규모 스케일로 진전되었다. 터렐은 빛을 물질로 만들어 관람자에게 전격적으로 지각하게 하고 그 미적 체험을 내면으로 끌어들이며 명상과 사색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가장 '영적(spiritual)'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건축적 설치의 관람자로 하여금 전시장인 아니라 '신전(神殿)'에 들어가는 느낌마저 자아낸다(도 14). 작가가 연출하는 놀라운 스펙터클 속에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사색과 명상에 잠기는 것이다. 그의 작업은 많은 예술 작품들 중, 숭고(sublime)의 의미를 가장 잘 구현한 작업에 속한다고 보았다. 현대미술에서 자주 인용되는 숭고의 개념은 아름다움과 구별되게 경외감과 공포, 두려움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개념에 대해 논한 여러 학자들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는 특히 18세기 에드문트 버크(Edmund Burke)의 개념에 따라 공포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크기의 거대함, 무한성, 장엄함 등이 유발하는 공포가 숭고와 직결되었다. 임마누엘 칸트(Emmanuel Kant)에 와서 이 개념이 대상이나 현상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 이에 대한 '주체의 체험'을 의미함이 강조되었다. 무한한 자연을 대면한 주체가 느끼는 비합리적 감정, 비언어적 위협감과 같은 것이다.

이렇듯, 숭고는 대자연 속의 미미한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현실 너머의 무한 세계와 초월적 영역을 감지하는 개념이다. 터렐의 작업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숭고의 체험을 가능케 한다. (대규모 건축적 설치작업 중, 자연현상을 비슷하게 재연하는 '유사자연(類似自然: pseudo nature)' 작업이 대체로 그러하다.) 그런데 필자는 이렇듯 놀라운 빛의 현현(顯現)을 통해 거의 구원이라도 약속시켜줄 듯, 우리를 종교적으로 만드는 터렐의 숭고한 건축적 작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이렇듯 압도적으로 놀라운 작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거의 '신전'처럼 전환된 그의 최근 대규모 건축적 설치작업은 마치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듯,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느낌이 있다. 그의 멋진 건축 설치작업을 직접 체험하면 관람자가 하나같이 감탄어린 표정으로 말을 잃은 모습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란 점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완벽한 '수동적 수용자'가 돼 버린 채, 개별적 차이가 소멸된 관람 방식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미술은 무엇인가?' 미술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예술가들에 의해 수없이 제기된 그 질문 말이다.



도13) 제임스 터렐, <태양 원반의 통치 Aten Reign>, 2013, 전시장 전경: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Installation view: June 21-September 25, 2013, Solomon R.Guggenheim, New York City) <좌>

도14) 제임스 터렐, <보는 공간 Space That Sees>, 1992, 이스라엘 박물관, 예루살렘 (Israel Museum, Jerusalem)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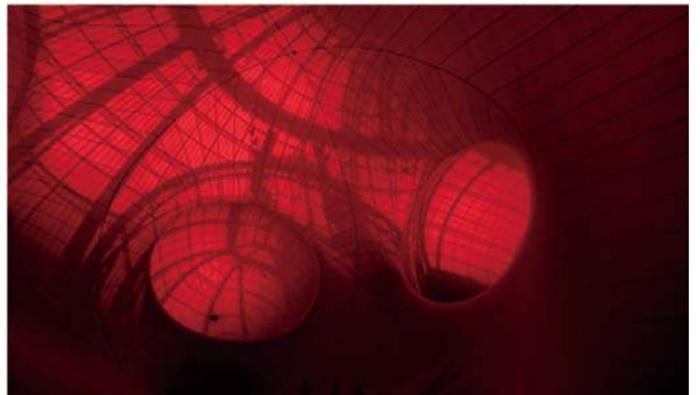
4회 연재에서 다룬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1954~)** 또한 숭고의 감정을 유발하는 대표적 작가였다. 그러나 글에서는 그의 대규모 건축 설치들을 소개하며 도시의 마크이자 문화적 표상으로 부각된 것을 제시했다. 글에서는 건축과 미술이 만나 협업을 이루는 궁극적 '장소(locus)'로서의 도시를 핵심어로 하여 카푸어의 거대 프로젝트를 들여다보았다. 주로 건축가와 공학자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카푸어 작업의 특징은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직결된다는 점, 그리고 그 건축물은 종종 몸(body)과 동일시된다는 점이다. 우리 몸의 근본 구조인 오목과 볼록의 구조를 지니고(도 15), 색채 또한 대체로 선홍색(핏빛)이다(도 16). 그리고 놀랄 만큼 섬세한 물감처리와 공간과의 관계는 언제나 관람자의 시각 체험을 의도한다. 그리고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충격효과가 동반된다. 그리고 그 충격은 엄청난 규모와 재료의 파격, 그리고 정해진 구조를 탈피하는 해체와 카오스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인도태생으로 영국 시민인 카푸어의 작업은 문화적 특성을 다층적으로 담지한 작업이기도 하다. 작업의 근본적 배경으로 한편으론 인도 전통,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철학, 특히 형이상학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양자에 기반하여 인간의 근본 구조와 속성을 다룬다. 빛과 어두움의 대립 사이의 영역에 대한 관심, 또 시각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색채와 매체, 그리고 작업의 규모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인상과 시각의 혼란을 선사한다. 관람자에게 요구한 완전한 몰입은 종종 불안함과 교란의 체험으로 유도된다. 이러한 미적 도전은 언제나 몸의 구조와 감각에 직결돼 있다. 건축을 변형시키는 그의 대규모 작업들은 종종 신체를 은유

하기 때문이다. 끈적끈적한 촉각적 재료와 선혈의 붉은 색채가 유기체를 그대로 닮아 있다. 이러한 점이 그의 작업을 추상적 개념과 형이상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근거라고 보았다.



도15) 아니쉬 카푸어, <내가 임신했을 때 When I am Pregnant>, 1992



도16) 아니쉬 카푸어, <리바이어던 Leviathan>, 2011, 전시 전경: 그랑 팔레 2011, 파리 (Installation view: Grand Palais 2011, Paris)

5회에서 살펴본 **도리스 살세도(Doris Salcedo: 1958~)**의 작업은 예술은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경우였다. 필자는 분쟁과 폭력이 만연한 사회적 현실을 미술의 표현언어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주력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렇듯 사회적 내용이 개입되는 미술작업에서 새로운 의미의 '추상(abstraction)'을 제시하였다.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이야기에서 보편적, 일반적 내용을 끌어올리는 것을 '추상'이라 명명할 수 있다. 살세도의 작업은 콜롬비아의 구체적 분쟁과 살상을 다루지만, 은유와 단순한 구조를 통해 폭력의 보편적 표현으로 추상화시켰다. 관람자가 보는 것은 콜롬비아의 분쟁이 아니라 인류의 폭력인 셈이다. 그의 건축적 설치 추상의 수위에 오른 것이다.

미술에서 추상의 개념이 형태와 색채를 다루는 형식주의를 벗어난 지 오래다. 추상미술은 일반적으로 구체적 대상을 다루지 않는 비대상 미술(non-objective art)과 동일시 돼 왔다. 이것이 모더니즘 미학이라면, 포스트모던의 반세기를 맞고 있는 오늘, 추상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필자는 글에서 최근의 추상이 작품의 내용과 컨텍스트에 대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삶의 리얼리티를 적극 반영하는 포스트모던 미학이 오늘날 자주 접하는 정치적 미술작업의 근거임을 밝혔다.

정치적 내용을 체험적으로 다룰 때, 특정한 역사와 사회를 배경으로 일화적인 내용을 주제로 잡게 된다(도 17).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 내러티브, 지역적 스토리를 지닌 정치적 문제는 다른 문화와의 연관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내전이 멀게만 느껴지고, 아랍의 테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 사건의 지역성 및 국지성 때문이다. 필자는 살세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절하고 강력한 미적 방법을 제시했다고 보았다. 콜롬비아의 분쟁과 살상을 '폭력'이란 개념으로 포괄시켜 이를 은유적 조형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 폭력은 보편적 개념으로 다른 문화에서도 동일시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요컨대, 필자는 살세도의 작업을 추상적 건축 설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업이라 보았다. 최근 미술계의 추상화 양상의 핵심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기반이 되는 맥락에서 분리시킨다'는 의미의 '탈맥락화(decontextualisation)'라 제시했다. 살세도의 작업에서 설명하자면, 작가는 특정 사건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된 모티브에 상징과 보편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치유와 기억을 위한 미적 역할로 활용한다. 예컨대, 그의 <십불렛 Shibboleth>(도 18)이 구현한 충격적 균열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주체의 불안정성을 은유하므로,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아무것도>와 <심연>이 나타내는 주제도 공허, 억압, 밀실공포 등으로 그 추상적 수위가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추상을 생각할 때, 살세도가 콜롬비아 출신의 작가란 점을 강조했다. 즉 이제까지 추상은 마치 서유럽 및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주류문화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미술에서 '발전'이란 말을 배척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적어도 모더니즘에서 발전을 이룬 것이 서구 주류문화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 모더니즘의 풍부한 미술 작업들 가운데 추상의 절정을 보았고, 이후에도 서구의 미술사는 고도의 추상미술을 담보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제3세

계 작가의 추상적 시도는 미술사의 흐름에 중요한 의미를 더한다고 보았다.



도17) 도리스 살세도, 제 8 회 이스탄불 국제 비엔날레(the Eighth International Istanbul Biennial) 설치 작품, 2003, 두 빌딩 사이 공간에 1550개의 의자가 쌓여져 있다. <좌>
 도18) 도리스 살세도, <십불렛 Shibboleth>, 2007, 약 167m, 테이트 모던, 런던(Tate Modern, London) <우>

마지막 6회는 한국 작가로 마무리 지었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서도호(Do Ho Seo: 1962~)**는 문화 정체성의 문제를 개인적 언어로 시각화한 것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업은 세계화 시대 속에서 한국적 표상을 잃지 않고 그 관계성을 표상했다고 보았다. 지역성과 세계화를 연결시키면서, 다층적 관계의 문화 구조 속에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 있다.

연재에서는 서울과 뉴욕, 그리고 런던 등 몇몇 도시 사이를 오가며 그 공간의 체험을 건축적으로 제시한 작업에 주목하였다. 다른 문화의 체험을 '이동하는 집'으로 표현한 서도호의 작업을 두 문화들 사이의 격렬한 충돌로 볼 것인가, 아니면 타문화의 연착륙을 나타낸 것으로 볼 것인가를 구분하기 힘들다. 이주(移住)와 정주(定住) 사이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적응이란 밀접히 연결돼 있고 또한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리버풀 비엔날레의 충격적 설치작업(도 19)을 충격적인 문화 충돌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문화 연계로 인해 형성된 상호적 연계구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중성이 '문화적 관계'를 주제로 삼는 서도호 작업의 중요성이라 보았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천으로 지은 집 작업은 이주와 정주 사이의 충돌과 대립이라기보다 타문화의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 작가의 초기작인 낙하산 작업을 제시하였다. '전치(displacement)'의 개념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 바로 낙하산 병사와

낙하산이다. 새로운 환경에 떨어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낙하산 병사처럼 작가는 새로운 문화에의 연착륙을 구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낙하산이 결국 천 작업이 됐다고 한다. 작가의 말을 다시 경청하면, “상징적으로는 천으로 된 집을 만들면서 크기를 재고 만들었던 과정이, 전혀 다른 문화에서 충돌하지 않고 무던히 헤쳐 나가면서(‘work through’) 살아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라 했다. 필자는 역시 이중성으로 결론짓는다. 요컨대, 밖에서 보면 '충돌'이고, 안에서 직접 겪는 주체의 입장에선 '연착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노마드 집’을 상정할 수 있다. 집은 반드시 고정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서도호의 <서울 집/L.A. 집>(1999)(도 20)에서 상상의 집을 구체적으로 목격한다. 접어 이동할 수 있는 집. 그 여정을 제목에 끝없이 남길 수 있는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집을 말이다. 지정학적이든 개념적이든 서도호의 집은 떠도는 집이다. 그런데 우리는 집이 계속적으로 이동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 집인가를 자문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이율배반적인 작업에 대한 사고는 우리가 가진 집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사실이다. 그의 경우, “집이란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것, 언제나 반복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집이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환상’이라 보았다. 집이란 결국 집이란 ‘마음의 고향’이란 것이니, 이 점은 모두 만족스런 결론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처음으로 시작된 집은 다른 여러 집들과 비교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누구든 처음의 집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집을 떠도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요즘같이 여행과 이동이 잦은 시기에 떠도는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 이 때 ‘첫 집(first home)’이 놓인 문화적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 서도호의 경우에도 아시아적 요소, 한국적 특징이 그의 작업에 문화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정주가 아닌 이주를 집의 기반으로 여긴다는 점만을 가리켜 작가를 ‘노마드(nomad)’라 명명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도19) 서도호, <연결하는 집 Bridging Home>, 2010, 리버풀 비엔날레, 리버풀(Liverpool Biennial, Liverpool)



도20) 서도호, <서울집/L.A.집 Seoul Home/L.A. Home> 1999, LA 현대미술관 소장(Collection of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이렇게 하여, 미술과 건축의 밀접한 관계를 현대미술의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6회의 연재를 마무리한다. 뉴욕(리처드 세라)에서 시작된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서울(서도호)로 돌아왔다. 그러나 정주란 있을 수 없고, 서울의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도시에서 ‘장기 체류’를 한다고 봐야 마땅하리라. 도시를 체험하며 공간의 기억을 축적하는 우리는 쉼 없는 ‘여행자(traveller)’로서 다음 체류지를 위해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내 마음의 온전한 집이다. 이 공간의 기억을 극대화하며 충실히 나의 자취를 남기는 것이 최선의 삶이 아닐까. ㉞